

【논 문】

중국의 ‘抗美援朝’ 전쟁과 周恩來

김 정 현*

Ⅰ 차 례 Ⅰ

- I. 머리말
- II. 周恩來의 항미논리와 인민지원군 출범
- III. 周恩來의 ‘항미원조’ 활동
- IV. 정전협상과 周恩來
- V. 정전협정 후 남은 문제
- VI. 맺음말

국문초록

1950년 6월 25일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발했을 때 중국은 ‘조선전쟁’이라고 불렀으나, 10월 중국인민지원군(the Chinese People’s Volunteers)이 참전하면서 ‘抗美援朝戰爭’으로 명명하였다. 당시 ‘抗美援朝’는 ‘保家衛國’이라는 애국주의 구호이고, ‘援朝’는 위협에 처한 형제나라 ‘조선’을 도와준다는 국제주의 구호이다. 그런데 항미원조전쟁은 조국 방어와 조선을 돕는 전쟁을 넘어, ‘인민해방군의 현대화 건설, 국내경제건설, 대중동원, 애국주의 정신, 중국의 대국지위’ 등 정치·외교·군사적으로 중요한 주제와 관련되며, 사회 각 방면의 인적·물적·사상적 지원 하에 추진된 총력전의 성격을 지닌다. 이러한 전방위적인 항미원조를 책임 지도한 사람은 바로 총리이자 외교부장이며, 중앙군사위 부주석인 周恩來이다. 당시 중국의 외교와 내정이 周恩來에게 집중되어 있었기 때문에, 周恩來는 정책결정에 참여하고, 작전 지휘, 인민지원군 편성·간부배치·무기장비 조달·병력보충 등 군사업무 뿐 아니라, 후방 지원과 물자공급, 국가관리와 외교담판, 정전협상 등 수많은 과

* 동북아역사재단

제들을 책임지고 처리한 항미원조전쟁의 실질적 지도자였다.

본 논문은 1950년 신생중국의 군사와 경제 상황의 어려움을 잘 알고 있는 周恩來가 왜 어떤 논리로 강대국 미국과 전쟁을 결정하고 인민지원군을 출병시키게 되었으며, 항미원조전쟁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 추진한 항미원조운동은 무엇인지 살펴보았다. 인민지원군 참전 이후 중국은 북한에게 후원자(patron)인 소련보다 중요한 구원자(savior)가 되었다. 하지만 중국은 미국과 전쟁을 초기에 종결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였다. 정전협상이 장기화되면서 협상과정에서 막대한 물적 인적 피해를 입고 있던 북한은 군사분계선 설정 이후 즉시 전투중지를 원한 반면, 중국은 정전협상을 유리하게 이끌기 위해 전투를 계속하고 북한의 요구를 무시하였다. 이어 정전회담이 포로교환문제에서 막히자, ‘일면협상, 일면전투’의 시기가 무려 2년 이상 지속되면서 전쟁의 참혹한 결과를 초래하였다.

1953년 7월 정전협정이 체결되자, 周恩來는 미국을 압박하여 정전협정을 체결케 한 중국의 승리이며, 미 제국주의에 대해 이길 수 없다는 신화를 타파하였고, 제국주의가 중국을 쉽게 무력 침략할 수 없게 만들었다고 강조하고, 이를 통해 중화민족의 자신감과 자존감을 고양시키고자 하였다. 그런데 항미원조전쟁 관련 한국에 대한 중국의 태도가 급변하고 있다. 최근 중국은 인민지원군 유해반환으로 시작된 한국과의 전쟁 유산의 해결을 위한 협력을 진전시키고 있으며, 시진핑 주석도 중국군 유해송환에 한국측이 도움을 준 데 대해 감사를 표시하였다. 앞으로 항미원조전쟁을 지휘하였고 정전협정을 체결한 당사자인 중국과 정전협정의 남은 문제들도 평화롭게 해결하도록 한중 양국이 협력해 나가야 할 것이다.

주제어 : 중국인민지원군, 항미원조전쟁, 주은래, 항미원조운동, 정전협정

I. 머리말

1950년 6월 25일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발했을 때 중국은 ‘조선전쟁’이라 불렀으나, 10월 중국 人民志願軍(the Chinese People’s Volunteers)¹⁾이 참전하면서

1) 毛澤東은 처음에 파병군대의 명칭을 支援軍으로 하려 했으나, 공식적 참전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당시 정부원 부총리 黃炎培가 제안한 志願軍으로 부르기로 하였다. 미국이 중국에 선전포고할 구실을 주지 않게 하기 위해 민간 대중이 志願해 조직한 군대

‘抗美援朝戰爭’으로 호칭하였다.²⁾ 중국 인민지원군이 참전하자 맥아더가 ‘새로운 전쟁이 되었다’고 언급했듯이, 한국전쟁은 국지전이 아닌 국제전으로 변하게 되었다. 중국은 내전이 완전히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군부대를 동북으로 이동시켜 국경방어 역량을 재편하다가 극히 짧은 시간 내에 파병을 결정하고, 또한 소련의 공중지원 제공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불리한 조건임에도 10월 8일 과감히 출병하였다. 이는 중국의 참전이 ‘피동’이 아닌 적극적 태도였음을 분명히 보여준다.³⁾

항미원조전쟁은 중국이 조국을 방어하고 조선을 돕는 의미를 넘어, ‘인민해방군의 현대화 건설, 국내경제건설, 대중동원, 애국주의 정신, 중국의 대국지위’ 등 정치·외교·군사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지니며, 사회 각 방면의 인적·물적·사상적 지원 하에 추진된 총력전의 형태로 추진되었다. 이러한 전방위적인 전쟁을 책임 지도한 사람은 당시 총리겸 외교부장이자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인 周恩來이다. 그는 군사작전 지휘뿐 아니라 후방 지원과 물자공급, 국가관리와 외교담판, 정전협상 등 수많은 과제들을 책임지고 처리한 실질적 지도자였다.⁴⁾

지금까지 중국과 한국전쟁 관련 연구는 소련과 중국의 문서공개와 한중 수교 이후 학술교류의 확대와 전쟁발발과 정전협정 50주년·60주년 등을 계기로 증대되어 왔고,⁵⁾ 중국에서도 다수의 관련 도서가 발간되었다.⁶⁾ 하지

라 명명한 것이다. 『中國人民志願軍‘名稱的由來』 『解放軍報』; www.sina.com.cn 2000.10.21.

2) 중국 국방대학 교수 서염(徐焰)은 ‘조선전쟁’과 ‘항미원조전쟁’은 4개월의 간격을 두고 발발한 서로 다른 전쟁이며, 3년여의 조선전쟁은 38선에서 시작해 원점에서 정전을 맞이한 반면, 2년 9개월간의 항미원조전쟁은 압록강변에서 시작하여 적국을 500km 후퇴하게 만들고 인접국을 구해낸 승리의 전쟁이라고 주장하였다. [環球時報, 2013.7.27] http://opinion.huanqiu.com/opinion_world/2013-07/4178021.html.

3) 徐勇, 2007, 「20세기 중국의 지역전략과 항미원조 전쟁과의 관계」 『만주연구』 6, 110쪽.

4) 中共中央文獻研究室編·金冲及主編, 1998, 『周恩來傳』, 中央文獻出版社, 911쪽.

5) 대표적 연구는 박두복, 1989, 「중공의 한국전 개입」, 김철범 편, 『한국전쟁』, 평민사; 이병주, 「중공의 한국전 개입과 그 영향」, 1990, 『한국전쟁의 역사적 재조명』, 한국국제정치학회; 김계동, 1990, 「한국전쟁을 보는 시각: 전쟁기원과 중국의 참전과정」 『통일문제연구』 2-2; 한국정치연구회 정치사분과 편, 1990, 『한국전쟁의 이해: 한국전쟁 발발 40주년 논집』, 역사비평사; 전쟁기념사업회, 1992, 『중공군 개입과 새로운 전쟁』, 행림출판사; 지재운, 1996, 「중공의 한국전쟁 참전결정에 관한 연구」 『중국연구』 17; 박동찬, 1999, 「한국전쟁과 중국

만 한중간 전쟁에 대한 해석과 호칭 등 시각 차이는 계속되고 있으며, 앞으로 한중관계 발전 추세에 맞추어 새로운 자료를 기반으로 더욱 다양한 접근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본고는 중국에서 인민지원군 과병에서 후방지원, 정전협상과 정전이후까지 외교와 국방, 후방지원 등 전쟁을 기획하고 지시한 周恩來의 자료를 중심으로, 7) 중국과 한국의 선행 연구성과를 활용하여

- 의 참전결정』 『전사』; 박두복 편저, 2001, 『한국전쟁과 중국』, 백산서당; 김옥준, 2002, 「중국의 한국전쟁 참전과 국내정치」 『국제정치논총』 42-1; 홍면기, 2002, 「중국의 한국전쟁에 대한 인식변화」 『전사』 4; 오규열, 2005, 「중국의 6·25전쟁에 대한 연구 성과와 동향」 『軍史』 55; 서상문, 2009, 「새로운 사실, 새로운 관점 : 모택동의 6·25전쟁 동의과정과 동의의 의미 재검토」 『군사』 71; 오규열, 2012, 「중국의 6·25전쟁에 대한 연구 성과와 동향」 『6·25전쟁사 연구동향과 발전방안』,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 ; 이계석·조성훈 편, 2012, 『한반도 분쟁과 중국의 개입』, 선인; 김학재, 2013, 「중국의 한국전쟁 개입과 동아시아 분단체제의 탄생」, 백원담·임우경 엮음, 『냉전·아시아의 탄생 : 신중국과 한국전쟁』, 문화과학사 등이 있다. 자료집으로는 정부기록보존소, 2002, 『韓國戰爭과 中國-韓國戰爭關聯 中國資料選集』,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 육군군사연구소 역, 2009, 『중공군이 경험한 6·25전쟁』 등이 있다. 번역물로는 洪學智 지음·홍인표 옮김, 1992, 『중국이 본 한국전쟁』, 고려원; 중국군사과학원군사역사연구부 저·오규열 역, 2002, 『중공군의 한국전쟁사』,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 주지안롱 지음·서각수 역, 2005, 『모택동은 왜 한국전쟁에 개입했을까』, 역사넷; 데이빗 수이·한국전략문제연구소 역, 2011, 『중국의 6·25전쟁 참전』, 한국전략문제연구소; 沈志華 저·최만원 역, 2010, 『마오쩌둥 스탈린과 조선전쟁』, 선인 등이 있다.
- 6) 한국전쟁 관련 중국의 출판도서는 1950년대와 60년대는 통속적이고 선전적인 대본이나 시나리오 등이 위주였고, 1980년대와 90년대는 기록문학 열풍으로 인하여 전쟁의 진상과 내막을 연구한 『압록강에서 관문점까지 : 위대한 항미원조전쟁』, 『중국인민지원군 항미원조전쟁사』 등의 작품이 유행하였다. 2000년대도 기록문학이 유행하여 『한국전쟁 전쟁포로의 수수께끼』, 『지원군사령부에서의 세월 속에서 : 잘 알려지지 않은 진실』 등이 출간되었다. 2009년 출판된 『한국전쟁』(인민문학출판사)는 9만권이 발간되었고, 李峰의 기록문학인 『북한에서의 결전(決戰朝鮮)]은 8년 동안 수십만 권이 판매되었다. 항미원조 60주년을 계기로 『가장 추웠던 겨울 : 미국의 눈으로 본 한국전쟁』·『여풍부대 : 제40군한국전쟁전기』·『압록강에서 38선까지』·『지원군총사령부 정보참모 눈으로 본 맥아더와 한국전쟁』 등이 잇달아 출간되었다. 『山西出版傳媒網』, 2010. 11. 1. <http://news.sxpmg.com/jtpd/zgcb/201011/34078.html>.
- 7) 중국에서 출간된 周恩來와 항미원조전쟁 관련 자료 및 대표적 연구성과는 中共中央文獻編輯委員會編, 1984, 『周恩來選集』, 人民出版社; 中共中央文獻研究室 中國人民解放軍軍事科學編, 1997, 『周恩來軍事文選』; 中共中央文獻研究室編, 1997, 『周恩來年譜(1949~1976)』, 中央文獻出版社; 外交部外交史研究室編, 1993, 『周恩來外交活動大事記, 1949~1975』, 世界知識出版社; 『周恩來外交文選』, 1990, 中央文獻出版社; 周恩來軍事活動紀事編寫組編, 2000, 『周恩來軍事活動紀事(1918~1975)』, 中央文獻出版社; 金沖及主編, 1998, 앞의 책; 張民 張秀娟著, 2000, 『周恩來與抗美援朝戰爭』, 上海人民出版社; 李東朗·任貴祥 主編, 1998, 『細說周恩來』, 河南人民出版社; 田進朱青, 1989, 『略談周總理對朝鮮停戰談判的領導思想』, 中華人民共和國外交部外交史編輯室編, 『研究周恩來 - 外交思想與實踐』, 世界知識出版社; 李金明, 2003, 『戰爭與和平的理性抉擇 - 試析周恩來在朝鮮停戰談判中堅持原則性與靈活性的統一』 『軍事歷史研究』 4; 柴

중국의 항미원조전쟁과 정전협정을 분석해보고자 한다. 본문에서는 1950년 신생중국의 군사와 경제 상황의 어려움을 잘 알고 있는 주은래가 왜 어떤 논리로 강대국 미국과 전쟁을 결정하고 인민지원군을 출병시키게 되었고,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어떤 지원 활동을 했는지, 정전회담 과정에서 주은래가 지도한 정전협상의 전략전술은 무엇인지 대해 알아보려고 한다. 중국의 항미원조전쟁과 정전협상 과정에서 주은래의 역할을 재조명해 봄으로써, 정전협정과 이후 남은 문제점들을 짚어보고 정전협정 60주년을 계기로 새롭게 전개되는 한중간 변화의 추이에 대해서도 언급하고자 한다.

II. 周恩來의 항미논리와 인민지원군 출병

1. 동북방위와 항미논리

중국은 1950년 6월 25일 한국전쟁이 발발했을 때 개입의사를 보이지 않았다.⁸⁾ 하지만 미국의 트루먼(Harry S. Truman) 대통령이 27일 중국 본토와 타이완 사이에 제7함대를 배치하자, 총리이자 외교부장인 周恩來가 6월 28일 공식적 입장을 처음 표명하였는데, 그것은 군사적 개입이 아닌 미국의 제7함대 타이완 배치에 대한 항의였다.⁹⁾ 주은래는 ‘조선전쟁은 미국이 이승만

成文, 2000, 「毛澤東, 周恩來領導朝鮮停戰談判的決定軌迹」, 『當代中國史研究』 11; 唐蕊, 2013, 「周恩來與抗美援朝戰爭的後勤保障」, 『毛澤東思想研究』 30-1; 吳小寶, 2009, 「周恩來抗美援朝戰爭所作的重要貢獻」, 『開國第一戰的記憶與思考』, 中國文聯出版 등이 있다.

8) 이틀간 한국전쟁에 관한 특별한 회의도 열지 않았고 국경지대의 군대 이동에서도 아무런 이상한 조짐이 감지되지 않았다. 최초의 공식적인 태도 표명은 1950년 6월 27일 『人民日報』가 ‘조선의 전면적인 내전은 이미 시작되었다’고 공포한 것이다. 정부기록보존소, 2002, 앞의 책, 4~6쪽; 沈志華 교수는 북한이 전쟁발발 3일이 지나서야 전쟁 상황을 통보했다고 한다. 沈志華 저·최만원 역, 2010, 앞의 책, 370쪽.

9) 「周恩來外長駁斥杜魯門1950年6月27日聲名的聲明(1950.6.28)」, 劉金質·楊淮生 主編, 1994, 『中

괴뢰정부를 교사해 일으킨 전쟁이자 중국을 침략하기 위한 음모'라고 여기고, 미국 무장간섭이 불법행위라는 성명을 7월 6일 유엔 안보리에 보냈다.¹⁰⁾ 여기서 주은래는 연합국 사무총장이 미국정부의 침략행동에 한마디도 못하고 세계평화를 보호할 직무를 방기한 채 미국정부의 정책에 복종하는 도구가 되었다고 비판함으로써, 연합국이 아닌 미국의 침략임을 강조하였다.

주은래는 7월 7일 국방보위 회의를 소집하여 중공중앙과 모택동의 동북변방군 성립에 관한 결정을 전달하고, 변방군 관할부대와 배치, 지휘기관 설치와 지도자선정, 정치적 동원과 병참보급 확보, 차량운수 계획과 병력보충문제 등을 논의하였다.¹¹⁾ 같은 시기 7월 8일 트루먼이 유엔군사령관으로 맥아더를 임명하였고, 중국도 동북변방군 구성과 동북지역 배치를 추진하였다.¹²⁾ 동북은 중국에서 가장 중요한 공업기지로써, 이 지역에 중국 중공업의 반이 집중되어 있다. 따라서 동북은 중국의 가장 중요한 전략적 지역이었지만 당시 군대가 대만작전으로 남하하고 최소한의 부대만 남아 병력이 부족한 상태였다.¹³⁾ 주은래는 중앙군사위원회 회의에서 7월 13일 정식으로 동북변방군을 구성하는 ‘동북변방 보위에 관한 결정’을 내리고, 제13병단과 42군단, 포병사단 등 25만 5천명을 동북지역에 배치할 것을 결정하였다.¹⁴⁾

8월 26일 미공군의 폭격이 동북지역에 이르자, 중국국방회의는 곧바로 대만공격을 연기하고 東北邊防軍 준비공작회의를 소집하였다.¹⁵⁾ 중국은 동

國對朝鮮和韓國政策文件匯編』I (1949~1952), 中國社會科學出版社, 7~8쪽.

10) 『周恩來軍事活動紀事(1918~1975)』 下卷, 2000, 128~129쪽; 『周恩來外長爲安理會6月27日通過關於武裝干涉朝鮮的決意致聯合國秘書長賴伊電(7月6日), 劉金質·楊淮生 主編, 1994, 앞의 책, 12~13쪽.

11) 『周恩來軍事文選』, 1997, 34쪽.

12) 『周恩來年譜 1949~1975』, 1997, 52~53쪽.

13) 李東朗 任貴祥 主編, 1998, 앞의 책, 387~388쪽.

14) 周恩來는 8월 5일 이전에 북한과 국경이역인 丹東, 通化, 本溪 등에 군대집결을 완결할 것이라고 毛澤東에게 보고했으며, 공군 3개군단으로 동북공군사령부를 구성해 동북지역에서 훈련시키기로 결정했다. 리핑(力平) 지음 허유영 옮김, 2004, 『저우언라이평전』, 한얼미디어, 354쪽; 시메이 칭, 2012, 『한반도에서 미국과 중국의 대결: 위기의 시대 양국은 서로를 어떻게 평가했는가?』 『정치와 평론』 10, 179~180쪽.

북변방군에 2개 군단을 추가하여 5개 군단을 압록강을 따라 배치하였고, 총사령관은 대만 작전의 총사령관이던 粟裕를 임명해 동북변방군의 군사력을 강화하였다.¹⁶⁾ 미군의 폭격으로 동북지역에 파괴와 사상자가 발생하자, 주은래는 8월 29일과 30일에 외교부장 명의로 미국 국무장관 애치슨과 유엔 안보리에 미군의 중국영공 침해 제지와 배상을 요구하였다.¹⁷⁾ 주은래는 10월 13일 유엔 사무총장에게 전보를 보내 미공군이 요녕성 장백현과 집안현 등 중국영공을 계속 침범한 데 항의하고, 조선과 대만을 침략한 미군의 즉각적 철수를 요구하였다.¹⁸⁾ 주은래는 중국영토에 대한 미군침략을 과거 일본 제국주의의 침략과 동일시하면서 “미 제국주의는 동방에서 일본의 군사기지를 이용하고 일본 군국주의를 계승하여, 청일전쟁 이래의 역사를 답습하고 있다. 중국을 집어삼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동북을 선점하고, 동북을 점령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먼저 한반도를 점령하여야 한다는 낡은 방법(老路)’을 답습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주은래는 미군을 중국 내전의 적이자 중국을 침략했던 일본군의 새로운 동반자로서 ‘미 제국주의’가 일본이 걸어온 그 ‘옛길’을 따라 압록강에 도달하여 동북기지를 위협하는 존재로 인식하였다. 주은래의 이러한 판단은 그의 정치가로서의 식견뿐 아니라 청년기 자신이 몸소 체험하고 관찰했던 사실에 바탕하고 있다. 그는 소년시절 백부를 따라 동북에서 생활하였고, 일

15) 『周恩來年譜(1949~1976)』, 1997, 70쪽.

16) 동북변방군 총사령관에 대만 공격을 담당하던 총사령관을 임명한 것은, 중국 지도부가 동북지역의 군사적 중요성을 우선하였음을 보여준다. 세르게이 곤자로프 외, 2011, 『흔들리는 동맹 - 스탈린과 마오쩌둥 그리고 한국전쟁』, 일조각, 294쪽.

17) 8월 27일 미국 국무장관 애치슨에게 일체 손실에 대한 미국정부의 배상을 요구한 데 이어, 8월 29일 “미국공군이 또다시 우리 중화인민공화국 영공을 침범하여 중국인민을 살상하였다. 이는 미국정부가 전쟁을 확대해 세계평화를 파괴하려는 의도를 충분히 드러낸 것이다. 유엔 안보리는 우리가 이번 달 27일 제출한 건의에 근거해 즉각 유효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조선을 침략한 미국군대가 침략을 확대하는 것을 제지해야 한다. 아울러 신속히 미국군대를 철수해야 하며 사태의 확대를 막기 위해 곧바로 단호한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周恩來外交活動大事記 1949~1975』, 1993, 20~21쪽; 정부기록보존소, 2002, 앞의 책, 33~34쪽; 『周恩來軍事活動紀事(1918~1975)』 下卷, 2000, 140쪽.

18) 「1950년 10월 26일, 28일 電報」 『周恩來外交活動大事記 1949~1975』, 1993, 23쪽.

본 유학중이던 1918년 7월 28일 일본에서 배로 부산에 도착하여, 기차를 갈아타고 동북으로 귀국한 적이 있다. 주은래의 어린시절 동북지방 생활과 부산을 거쳐 일제에 침략당한 한반도를 여행하며 보았던 기억은 그가 32년 뒤에 언급한 ‘낡은 방법(老路)’과 연결된다.¹⁹⁾ 주은래에게 항미원조전쟁은, 일본에 이은 미국 제국주의에 대한 저항이자, 동시에 중국대륙의 정권이 전통적으로 동북방위를 위해 순망치한의 관계에 있는 한반도의 전쟁에 참전하고 해상 위협에 공동으로 대처해 온 전략과도 이어진다.

2. ‘항미원조’의 필요성과 인민지원군 출범

당시 중국공산당 간부 상당수는 미국이라는 열강과 맞서는데 회의적이었고, ‘중국은 내전이 종식되었으므로 안정과 휴식을 취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 주은래도 한국전 참전이 중국의 경제재건에 지장을 준다는 이유에서 처음에는 부정적이었지만, 중국의 공업중심지인 동북에 대한 미국의 위협이 가시화되자, 抗美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특히 미군이 인천에 상륙하고 김일성과 스탈린의 지원요청을 받게 된 중국은 전쟁계획을 수립하였다.

주은래는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치를 놓고 볼 때 우리는 지원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미국이 조선-타이완-베트남의 3개주요 방향에서 중국으로 진격한다면, 조선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왜냐하면 조선 북방에는 산지가 많아 미군에 불리하고 우리의 기동전에 유리하며, 조선과 소련이 이어져 있어서 소련의 원조를 받기도 편하기 때문이다. 중국의 참전 목표는 군사상의 승리를 쟁취함으로써 미국이 스스로 어려움을 알고 물러나게 하는 것”²⁰⁾이라고 밝혔다. 당시 미국이 중국의 한국전 개입 가능성을 과소평가한 바와 달리, 중국은 한반도가 미국에 대항하기에 가장 좋은 장소

19) 徐勇, 2007, 앞의 논문, 124쪽.

20) 董小鵬, 1996, 『抗美援朝後方總指揮』, 『風雨四十年(제2부)』, 中央文獻出版社, 199~207쪽; 정부기록보존소, 2002, 앞의 책, 278쪽.

라고 판단한 것이다.

중국이 인민지원군을 출병하는 또 다른 전제조건은 미군이 38선을 넘을 것인가였다. 모택동과 주은래는 중국의 한국전 참전에서 38선이 결정적 변수임을 여러 번 강조하였다. 주은래는 1950년 10월 3일 중국주재 인도대사 파니카(Panikar)와 회담시 즉각 정전과 외국군대의 철수를 포함한 한국전쟁 국지화를 피력하였고, 미군이 만약 38선을 넘으면 중국이 관여할 것이라고 경고하였다.²¹⁾ 그리고 남한군이 아닌 미군이 38선을 넘을 때 중국이 반드시 전쟁에 참여할 것임을 특별히 강조하였다.²²⁾ 그러나 소련과 중국이 개입하지 않을 것이라 여긴 맥아더가 10월 7일 38선을 넘자, 모택동은 10월 8일 유엔군의 진격을 저지시키라는 지시와 함께 중국인민지원군 편성을 명령하였다.²³⁾

주은래는 “현재 문제는 우리가 출병할 것인가 말 것인가가 아니라 미국이 우리에게 싸우지 않을 수 없게 한다는 것이다. 우리의 自衛는 정의로운 것이며, 정의의 전쟁은 반드시 승리한다. 현재 조선정부는 우리의 출병을 요구하고 있다. 우리가 어떻게 구하지 않을 수 있는가? 현재 고려해야 할 것은 출병의 여부가 아니라 출병 후 어떻게 승리를 쟁취하는가 이다”²⁴⁾라고 출병의 당위를 언급하였고, 동시에 ‘조선 혁명정권은 동북해방구에 여러 도움을 주었다’고 강조하였다. 10월 8일 중공 중앙위원회가 정식으로 ‘조선 출병’을 결의하자, 소련에 머물고 있던 주은래는 10월 14일 중국의 조선출병 결정을 스탈린에게 통보했다. 미국은 중국정책을 수립하면서 소련·중국·북한의 이념적 연대의 중요성을 크게 강조하였지만, 중국의 인민지원군 파견은 이념적 연대보다는 유엔군이 38선을 넘어 북진한 안보요인이 더

21) 「周恩來總理同印度大使潘尼迦的談話：美軍如越過三八線，我們要管(10月3日)」 『周恩來外交文選』, 1990, 25~27쪽; 劉金質·楊淮生 主編, 1994, 앞의 책, 43~44쪽.

22) 『周恩來外交活動大事記 1949~1975』, 1993, 22쪽.

23) 毛澤東은 ‘동북변방군을 중국인민지원군으로 개편하고 즉각 북반변경으로 출동하여 북한 동지들과 협력하면서 침략군과 전투를 벌여 영광스러운 승리를 쟁취한다.’고 지시하였다. 『周恩來軍事活動紀事(1918~1975)』 下卷, 2000, 148쪽.

24) 『周恩來年譜(1949~1976)』 上卷, 1997, 84쪽.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주은래는 1950년 10월 24일 중국인민협상회의 제1차 전국위원회 제18차 상무위원회에서 한 한국전쟁 참전보고에서 “미 제국주의가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어떻게 안심하고 생산과 건설에 전념할 수 있겠는가? 압록강 국방선의 방위를 강조하고 우리가 병력을 출동시키는 것은 우리의 안전이라는 관점에서 이유가 있는 행동이며, 적들에게는 이유가 없는 것”²⁵⁾이라며 ‘항미원조, 보위평화’를 강조하였다. 인민지원군 18개 사단이 출병한 후 치른 1950년 11~12월의 제1, 2차 전역²⁶⁾에서 계속 승리하여 38도선 부근까지 남하하자, 주은래는 ‘맥아더가 38선을 파괴한 것이므로 중국인민지원군도 38선을 넘을 수 있고, 넘을 수 없다고 하면 안된다’²⁷⁾고 언급하였고, 항미원조전쟁의 승리를 위해 군사력 증강과 후방지원, 내부단결 및 경제건설 활동에 매진하였다.

Ⅲ. 周恩來의 ‘항미원조’ 활동

인민지원군이 참전한 이후 중국은 북한에게 후원자(patron)인 소련보다 중요한 구원자(savior)가 되었다.²⁸⁾ 중국은 항미원조전쟁에 막대한 인력과 물자를 투입해, 3년간 중 300만 톤에 달하는 식량과 탄약, 연료 등의 물자를 공급하였다.²⁹⁾ 전쟁기간 중국은 대규모의 재정지출을 감수해야 했고 주은래

25) 周恩來, 「抗美援朝, 保衛平和(1950.10.24)」 『周恩來選集』 下卷, 1984, 50~54쪽.

26) 중국은 전투를 다섯 차례의 주요 戰役으로 구분한다. 1950년 10월 25일부터 11월 5일까지의 1차 전역, 11월 24일부터 12월 24일까지의 2차 전역, 12월 31일에서 1951년 1월 8일까지의 3차 전역, 1월 25일에서 4월 21일까지 4차 전역, 그리고 4월 22일에서 6월 10일까지의 5차 전역이다.

27) 박실, 2013, 『중국 공문서와 자료로 본 중공군의 한국전쟁』, 청미디어, 112쪽.

28) Chae-Jin Lee, 2002, *The Korean War and China-North Korea Connection*, 유영익·이채진편, 『한국과 6·25전쟁』, 연세대학교출판부, 323쪽.

29) 항미원조를 위한 지출은 1951년 재정수입의 57%를 차지하였고 이후 전쟁으로 인한 지출은 매년 증가세를 보였다. 1952년도에는 국가총지출의 27.93%, 1953년도에는 22.38%가 책정되었다. 王元周, 2011, 「한국전쟁기간 중국의 군비지출과 대북지원」 『통일인문학논

는 전쟁을 막후 지휘하면서 국내정치 경제건설까지 돌보아야 했으나, 물론 전쟁의 승리가 전제조건이었다. 인민지원군 총사령 팡덕회가 전방과 후방의 비중이 3 : 7이다’라고 말했을 정도로 후방의 지원이 중요했는데, 모든 후방 지원업무는 주은래가 지휘하였다. 1950년 10월초 중국공산당 정치국회의에서 인민지원군 파견을 결정했을 때, 그는 충분한 준비만이 승리할 수 있는 길이라고 강조하였고, 실제로 지원군 편제와 무기, 병력보충, 군수품 생산, 교통운송, 후방지원과 작전지휘까지 그의 손을 거쳤다. 주은래는 후방근무 관계자 회의를 소집하여 지원군 출병 후 공급문제, 작전물자 공급계획과 규정을 정하고, 국내의 공급방침에 맞추어 작전을 세우는 등 후방지원의 체계를 정비하였다.³⁰⁾

주은래는 지원군을 위한 보급품 조달과 수송에 노력을 기울이면서 보급품 공급의 구체적인 문제점까지 지적하였다. 예컨대 미군폭격과 전투로 인해 인민지원군이 밥을 지어먹을 수 없는 상황을 알고, 이들에게 볶음 면과 미숫가루를 지원해줄 것을 정무원에 지시하였다. 동북인민정부는 1950년 11월 12일 ‘미숫가루 생산을 위한 규정’을 만들어 심양시의 경우 당정군 각 기관마다 날마다 최소한 미숫가루 13만 8천근을 의무적으로 생산하도록 했고, 동북군구는 12월 8일 ‘미숫가루, 고기포 생산회의’를 열어 한 달 내로 미숫가루 650만 근과 고기포 512만 근을 생산하는 방안을 강구하였다. 주은래는 보다 많은 미숫가루를 보내주기 위해 짬을 내 직접 기관 간부들과 함께 미숫가루를 만들었으며,³¹⁾ 그가 손수 면을 볶아내는 모습은 전선에 대한 지원과 생산 확대의 열풍을 불러일으켰다.³²⁾ 또한 1951년 1월 지원군 보급품 공급을 논의하기 위한 동북군구회의에 참석하여, 지원군들의 커다란 전투모가 조선의 산지전투에 적합하지 않다며 전투모를 바꿀 것을 지시하고,

총』 Vol.52, 255쪽.

30) 吳小寶, 2009, 앞의 논문, 59쪽.

31) 이 소식을 듣고 전선의 병사들이 감격하여 미숫가루 한줌을 먹고도 용기백배했다고 한다. 洪學智 지음·홍인표 옮김, 1992, 앞의 책, 250쪽.

32) 董小鵬, 1996, 『抗美援朝後方總指揮』, 『風雨四十年』, 中央文獻出版社, 199~207쪽; 정부기록보존소, 2002, 앞의 책, 279~281쪽.

면으로 된 군복은 찢어지기 쉽다며 누빔천으로 군복을 제작하도록 했다. 주은래는 작전보급품의 안전한 공급을 위해 철도와 도로, 부두 등의 보수도 지시하였다.

당시 중국정부는 ‘항미원조 보가위국의 성스러운 임무를 위하여 분투할 것’을 전국민에게 호소하였고, 항미원조운동을 통해 미 제국주의에 대한 적개심을 최대한 제고시키고, 정권에 대한 신념과 애국심을 고취시켰다.³³⁾ 중국정부는 미국에 우호적인 사상(崇美 親美 恐美)을 갖고 있는 중국인들을 ‘항미원조 보가위국’에 동원하기 위해, 애국주의적 선전교육으로 미국을 적대시(仇美), 경시(鄙美), 멸시(蔑美)하는 교육을 시행하였다.³⁴⁾ 전국적인 항미원조운동을 통해 애국주의 교육을 강화하고, 노동자에게는 애국주의 생산경쟁을, 농민에게는 지원병으로서의 참전을 호소하였다. 그리고 ‘비행기·대포 모금운동과 무기헌납, 애국공약 제창’, ‘증산절약운동과 전쟁물자공급’, ‘군인가족 위문과 조선위문단 파견’ 등을 진행하였다.³⁵⁾ 주은래는 송미 사상과 미국을 두려워하는 심리를 소멸시키기 위한 지시를 내렸으며,³⁶⁾ 직접 지원군과 조선인민군을 위문하고, 전국 인민의 애국주의 사상 제고를 위해 노력하였다. 항미원조 운동은 한국전쟁에 대량의 인력과 물력을 공급하였을 뿐만 아니라, 중국공산당의 통치 질서를 공고히 하는 데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³⁷⁾

33) 박두복, 2001, 「중국의 한국전쟁 개입원인 - 개입결정의 피동적 능동적 측면」, 박두복 편저, 앞의 책, 168쪽.

34) 중국군사과학원 군사역사연구부 저·오규열 역, 2002, 앞의 책, 285~286쪽.

35) 중국정부가 벌인 항미원조운동은 ①인력 재력 물력의 최전선예의 공급확대 ②애국주의 교육 심화와 중화인민공화국의 주인 의식 강화 ③국내 숨어있는 제국주의 앞잡이와 간첩 색출 ④애국증산 절약운동의 전개 ⑤무기헌납운동의 확산 ⑥군인가족과 烈士가족에 대한 우대 강화 ⑦애국공약 운동의 보급 등이다. 劉金質·楊淮生 主編, 1994, 앞의 책, 227~228쪽.

36) 「中共中央關於在全國進行時事宣傳的指示」(1950.10.26), 中共中央文獻研究室編·金沖及主編, 1998, 앞의 책, 924쪽.

37) 출판계와 문예계도 공연과 출판 분야에서 긴밀하게 협조하였다. 1951년에서 1954년까지 『人民日報』에 실린 항미원조 관련 선전문은 한 평균 2만여 자에 달하였고, 항미원조운동 기간 관련 독서물과 만화 등 서적의 총 발행부수는 1억권 이상이였다. 손해룡, 2011, 앞의 논문, 163~165쪽, 중국은 전쟁기간 광범위하게 전국적으로 전개된 항미원조를 중심

주은래는 인민지원군에게 북한과의 협조를 강조하였고,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 전 먼저 북한측 의견을 구하도록 지시하였다. 하지만 1951년 4월 주은래는 김일성에게 ‘전쟁수행을 위해 북한철로는 반드시 군사관리제도 아래 통일적으로 통제되어야 하며, 연합사령부 아래 중국과 북한 연합의 군사운수사령부를 조직하고, 북한 철로의 관리와 운수 등의 작업을 통일적으로 집행할 것’을 제의하였다.³⁸⁾ 주은래는 전쟁승패의 문제를 중시하였기에, 군사지휘권과 더불어 철도도 중국군이 통제하도록 주장한 것이다. 북한은 철도관할권은 주권에 해당하는 문제라고 중국과 논쟁을 벌였지만, 조중연합사령부가 설치되면서 중국군의 지휘를 받는 위치가 되었다.³⁹⁾

주은래는 공군과 포병, 장갑차부대, 공병, 해군함대 등을 구성해 훈련시켰다. 대부분의 무기를 소련에서 사들이고, 부대의 편제와 훈련도 소련 고문의 도움을 받았다. 주은래는 항미원조전쟁 참전을 위해 소련에 가서 공군 지원과 군수물자 제공을 요청하였고,⁴⁰⁾ 전쟁을 승리로 이끌기 위해 소련에 중국의 예산상황과 전투계획 등을 보고하였으며,⁴¹⁾ 휴전협상 중에도 협정을 유리하게 체결하기 위하여 전투를 계속하면서 필요한 군수물자를 요청하였다.⁴²⁾ 그는 국방건설을 위해 소련의 군수물자를 들여와 중국 군대의 무

으로 일체의 활동중점을 전쟁승리에 지향시킴으로써 국민적 통합을 이끌어내었다. 崔北鎮, 2013, 『중국의 6·25전쟁 종결전략 연구』, 대전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126쪽.

38) 『周恩來軍事活動紀事(1918~1975)』 下卷, 2000, 204쪽.

39) 중국은 정전협정에 서명한 이후, 북한 철도와 관계된 모든 지휘권을 넘겨주었다. 梁鎮三, 2002, 「전쟁기 중국지도부와 북한지도부 사이의 모순과 갈등」, 『한국전쟁사의 새로운 연구』 2, 국방부 국사편찬연구소, 612쪽.

40) 周恩來는 1950년 10월 11일 스탈린을 만나서 소련측이 공군지원을 약속하면 중국은 조선에 출병가능하다며 군수물자제공을 요청하였고, 모택동의 13일 전문내용에 따라 스탈린에게 소련정부가 북경 상해 등 대도시 외에 연해도시에도 공군을 파견해 줄 수 있는지에 대해 문의하고 비행기, 탱크, 대포 등 외에도 자동차 등의 기타 공병자재 제공을 요청하였다. 『周恩來年譜(1949~1976)』 上卷, 1997, 85~86쪽.

41) 1951년 11월 스탈린에게 ‘항미원조로 중국정부의 예산은 1950년도보다 60% 증가하였고 총예산중 32%는 한국전쟁에 직접적으로 사용되었다.’ ‘부대를 간소화하고 생산을 증가하여 계속 항미원조사업을 강화함으로써 전투에 이길 수 있다’고 보고하였다. 『周恩來年譜(1949~1976)』 上卷, 1997, 195쪽.

42) 1952년 12월 15일 스탈린에게 ‘휴전협상이 중지되었고 미군이 아직 한반도에서 치명적인 손실을 입은 것이 아니기에 한동안 한반도 정세는 더욱 치열해질 가능성이 있다. 적

기를 개선하고, 병력을 증강시키기 위해 노력하였다. 하지만 소련인 고문의 조언이 중국 상황에 맞지 않는 경우는 모두 수용하지 않고 기존방식이 중국에 더 적합하면 그대로 유지시켰다. 1952년 7월 팽덕회가 북한에서 귀환해 중앙군사위원회 업무를 맡게 된 후에도, 주은래는 공산당 중앙부주석과 국가총리로서 계속 군사업무를 중시하고 지원하였다.

한편 미군은 지상전에서 인민지원군에게 밀리게 되자, 우월한 공군력으로 중국 동북지역에까지 폭격을 계속하였다. 주은래는 당시 全國防空준비위원회 소집인과 전국 애국위생운동위원회 주임을 맡아 중국의 각급 단체와 함께 미국의 폭격과 ‘세균전’을 규탄하는 항의집회를 개최하고 성명을 발표하였다.⁴³⁾ 1952년 3월 8일 ‘미국의 세균전을 규탄하는 성명’⁴⁴⁾을 통해 周恩來는 미군의 부도덕성과 전쟁범죄를 맹렬히 비난하는 한편, 1952년 8월 모스크바를 방문하여 소련에 대규모 군사장비 지원을 요청하고 무기와 장비를 획득하였다. 중국은 항미원조전쟁으로 인적·물적으로 손실도 입었지만, 현대화한 군장비와 무기 등 소련으로부터 대규모 군사 경제 원조를 받아 경제회복과 군현대화를 달성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었다. 또한 항미원조운동 과정에서 중국군의 정신과 심리적 태도, 전투능력, 후방지원 등에 상당한 진전이 이루어졌다.⁴⁵⁾

항미원조전쟁이 막바지에 이른 1953년 2월 4일 주은래 총리는 ‘전국정치

의 상륙작전과 조기 진공을 막기 위해 우리군은 여러 준비를 하고 있으므로, 소련 측에서 항미원조전쟁 군수품 물자주문 요구를 충족시켜 주길 바란다’고 전보 보냈다. 『周恩來年譜(1949~1976)』 上卷, 1997, 273쪽.

43) 1952년 2월 21일 주은래는 ”적은 1월 28일부터 한국전선에서 비행기로 유독세균을 뿌리는데 화학검사결과 페스트, 콜레라 등의 병균이 함유되어 있어 이미 전방에서 제거작업을 실시했다. 우리는 세계 여론을 동원하여 대응해야 한다“고 김일성과 팽덕회에게 전하였고(『周恩來年譜(1949~1976)』 上卷, 1997, 218쪽; 정부기록보존소, 2002, 앞의 책, 213~214쪽), 2월 24일 미국의 세균전에 반대하는 북한의상 박헌영의 입장을 지지하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周恩來外長支持朝鮮朴憲永外務相抗議美國政府進行細菌戰聲明』, 劉金質·楊淮生主編, 1994, 앞의 책, 284~285쪽.

44) 『周恩來年譜(1949~1976)』 上卷, 1997, 223쪽.

45) 모택동은 1952년 8월 4일 전국정치협상회의 상임위원회에서중국군의 발전에 대해 ‘현재 공군도 있게 되었고 고사포, 대포, 탱크도 있게 되었다’고 언급하였다. 趙學功, 2007, 「6·25전쟁이 중국군사에 미친 영향」 『軍史』 65호, 23~24쪽.

협상회의 제1기 제4차 회의’에서 “항미원조 투쟁은 미국 제국주의자들의 세계 침략시간표를 무너뜨린 것이며, 우리 인민들의 위대한 애국주의와 국제주의 정신을 크게 발휘하게 하였고, 親美 崇美 恐美 사상을 굳건히 분쇄하였다. 전국 인민들은 애국 위생운동을 전개하여 미국의 세균전을 패배시켰다. 항미원조운동은 우리의 사회개조와 경제회복 사업의 조기완성을 사실상 보증하였다.”고 보고하였다.⁴⁶⁾ 그리고 ‘중조인민의 군대는 싸울수록 강해지고 적들은 병력과 물자에서 손실과 소모가 커졌다. 중국 인민은 항미원조 투쟁을 계속 강화하여 중국의 국방역량을 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IV. 정전협상과 周恩來

1. 전쟁 조기종결의 기회상실

중국의 ‘항미원조전쟁’은 초기부터 조기 종결의 기회가 여러 번 있었으나, 미군뿐 아니라 중국 역시 기회를 놓치면서 협정체결이 2년 이상 지연되었다. 주은래 총리는 1950년 7월 12일 전쟁종식을 위한 다섯 가지 기본조건으로, 한반도에서 외국군대 철수·미군의 타이완해협 철수·한반도문제는 한민족 스스로 해결·유엔에서 중화인민공화국의 합법지위 회복·미·영·프·소 4개국 외무장관 회의에서 대일 강화조약 준비 등을 제시하였다. 당시 중국은 한국전쟁의 정치적 해결과 동시에 중국의 현안인 대만문제, 유엔 의석문제, 일본과의 평화조약 등 1945년 이후 동북아 전후질서의 합의까지 포괄하려 했다. 주은래는 1950년 8월 26일 유엔 총회에 직접적으로 중국 정부의 인정을 요구했다. 9월 19일 유엔총회에서 중국대표 문제가 논의되고 인도가 중화인민공화국의 인정이라는 결의안 초고를 제출했으나, 거부되었다.⁴⁷⁾ 주은래는 한국전쟁 종결을 유엔에서 중국의 대표성 확보를 위한 호기

46) 「周恩來總理在全國政協一屆四次會議上的政治報告(2月4日)」, 劉金質·楊淮生 主編, 1994, 앞의 책, 420~425쪽.

로 간주하고 중국의 유엔가입 노력을 시도하였는데, 그는 미국이나 유엔이 중국의 한국전 개입을 막기 위해 중국의 유엔가입을 승인하고 중국을 국가로 인정해 줄 것으로 기대한 것이다.⁴⁸⁾

또한 중국은 미국 제7함대의 대만해협 철수와 蔣介石 정부에 대한 지원이 철회된다면 압록강 남쪽의 비무장 완충지대안을 수용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혔지만, 미국이 이를 무시하여 조기종결의 기회가 사라졌다. 결국 1950년 10월 중국 인민지원군이 참전하자, 유엔에서 중국대표 문제에 대한 호의적 표결 가능성은 사라지고, 오히려 중국을 북한과 마찬가지로 ‘침략자’로 비난하는 유엔사령부 특별보고서가 제출되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이 보고서를 토의하기 위해 11월 8일 중국대표의 참석을 결의하였지만, 주은래는 이를 거절하고 대신 한반도와 대만에 대한 미국의 무장간섭 규탄을 건의하였다.⁴⁹⁾

인민지원군 과병이후 유엔군이 계속 후퇴하게 되자, 유엔총회는 1950년 12월 중순 ‘선휴전, 후협상’이라는 인도의 제안을 채택하고, 유엔총회 의장을 포함한 3명을 정전위원회를 구성하여 휴전의 기초를 세우기로 결정하였다. 이에 주은래는 12월 22일 유엔총회가 중국대표가 참가하지 않은 가운데 불법으로 ‘한국전쟁 정전3인위원회’를 구성하는 결의안을 통과시킨 데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유엔의 정전제의를 거절하였다.⁵⁰⁾ 이후 중국-북한군이 제3차 전역에서 승리하여 37도선에 이르자, 1951년 1월 11일 유엔총회는 중국에 정전협상을 제안하였다. 하지만 중국정부는 1월 17일 유엔의

47) 김학재, 2013, 앞의 논문, 407쪽.

48) 그렇게 되면 국제사회가 자동적으로 타이완을 중국의 일부로 받아들여지게 될 것을 기대하였으나 미국에 의해 좌절되었다. 결국 중국은 유엔 가입과 한국전 종전을 연결시키는 정책을 철회하였다.

49) 「周恩來外長爲拒絕安全理事會11月8日的邀請復安全理事會主席電(11월 11일)」, 劉金質·楊淮生主編, 1994, 앞의 책, 64~65쪽. 중국은 대만문제에 한정하여 11월 15일 이후의 안보리 논의에 참석하기로 했다. 하지만 중국은 한국의 정치 문제 전반에 대한 토론에는 참석할 수 없게 배제되었고, 군사개입 문제만을 논의할 수 있게 제한되었다. 김학재, 2013, 앞의 논문, 408쪽.

50) 「周恩來外長關於聯合國大會非法通過“朝鮮停戰三人委員會”的決議的聲明(12월 22일)」, 劉金質·楊淮生主編, 1994, 앞의 책, 121~124쪽.

‘선정전 후협상’ 제안을 거절하고, ‘외국군대 철수, 중국의 유엔 합법지위 획득, 대만에서 미군 철수’를 계속 주장하였다.⁵¹⁾

주은래는 미국정부가 미군이 ‘선정전 후협상’을 제안한 것은 미국이 숨을 돌릴 시간을 벌어 다시 전쟁을 준비하려는 음모가 있기 때문이라고 여겼다.⁵²⁾ 그러나 실제로 호흡을 가다듬을 필요가 있는 것은 중국 군대였다. 중국도 인민지원군 병사의 감소와 피로, 병참선 연장과 군량공급 곤란에 처해 있었지만, 미군의 반격능력과 자신들의 전쟁수행 능력을 분명하게 예측하지 못하고 정전을 유리하게 실현시킬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한 것이다.⁵³⁾ 이러한 결정은 오히려 미군이 한숨을 돌릴 수 있게 했을 뿐 아니라, 중국이 유리한 조건에서 정전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했다.⁵⁴⁾

유엔군은 1951년 1월 15일부터 유엔군의 전선을 북상시키는 반격작전에 돌입하였고, 미국 상하양원이 중국을 침략자로 규정하는 결의안을 채택하자, 1951년 2월 1일 유엔도 같은 취지의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유엔군은 3월 15일 서울을 다시 확보하였고, 전쟁전의 38도선을 회복하였다. 중조연합군은 4월 중순 38도선 이북까지 후퇴하여 방어진지를 재편성하게 되었다. 전쟁이 38선 부근에서 교착상태에 빠지고 미국이 1951년 4월 11일 유엔군 총사령관 맥아더를 해임하였다. 미국정부는 새로 부임한 리지웨이 사령관에게 38선의 전면적 재 돌파가 불가함을 통보하고 휴전을 적극 추진하였다. 소련외상 말리크도 6월 23일 ‘전장에서의 휴전’을 공식 제의했고, 중국도 이를 지지하였다.⁵⁵⁾ 중국은 1951년 4월말 제5차 전역의 대규모 공세가 실

51) 『周恩來外長建議召開七國會議談判迅速結束朝鮮戰爭及和平解決亞洲問題致聯合國大會第一委員會主席復電(12月22日)』, 劉金質·楊進生主編, 1994, 앞의 책, 138~139쪽.

52) 『周恩來軍事活動紀事(1918~1975)』 下卷, 2000, 174쪽; 『周恩來年譜(1949~1976)』 上卷, 1997, 118~119쪽.

53) 중국이 유엔의 휴전제의를 받아들였다면 군사분계선 설정 역시 중국과 북한에 유리할 것이었다. 지원군은 합법적으로 38선 이남에 근거지를 확보할 수 있었고, 휴전에 실패하더라도 재진격을 위해 부대를 정비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을 벌 수 있었다. 하지만 중국이 거부해 미군이 반격을 개시한 이후 병력손실도 커졌다. 沈志華, 2001, 「중국의 한국전쟁 참전결정에 대한 평가」, 박두복 편저, 앞의 책, 268쪽; 楊奎松, 2001, 「중국군의 정전협상전략」, 『한국전쟁사의 새로운 연구 1』 서울, 국방부 국사편찬연구소, 528~529쪽.

54) 沈志華 著·최만원 역, 2010, 앞의 책, 338~339쪽.

패하고 1951년 5월 유엔의 경제봉쇄 조치로 인한 타격으로 인해 결국 7월 10일 정전대화를 시작하게 되었다. 하지만 대만 문제와 유엔에서 중국의 합법적 지위문제 등을 포기해야 했다.⁵⁶⁾ 미국이 포괄적 평화협상이 아닌 순전히 한반도에서의 군사적인 정전협상으로 한정했기에, 중국도 군사문제가 아닌 유엔대표나 대만문제를 협상에서 제외하게 된 것이다.

2. 개성 정전회담

정전회담은 본회담 대표회의, 분과위원회 회의, 연락장교회의, 참모장교회의 등으로 이루어졌다. 본회담은 쌍방 5명 대표들이 참석해 의제 합의와 최종결정, 이를 공식화하는 대표회의였다.⁵⁷⁾ 1951년 7월 10일 개성에서 정전회담이 진행될 때, 주은래는 협상일정·방침·전략에서부터 협상이 열리는 장소·중립지대의 범위에 이르기까지 대부분을 막후에서 지시하였다. 주은래는 협상대표단인 鄧華와 解方, 북한의 南日 외에 이들의 협상지도 그룹으로 李克農과 喬冠華 등 국제외교문제 전문가를 배치하였다.⁵⁸⁾

정전회담의 핵심의제는 군사분계선과 비무장지대 설정, 외국인군 철군문제와 중립국 감시기구 구성, 정치회담을 통한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포로송환 등이다. 회담 개시 후 의제선정 과정에서 양측은 군사분계선과 외국인군 철군문제로 충돌하였다. 주은래는 의제에 반드시 ‘외국군 철수’를 넣

55) 이완범, 2005, 「중국의 6·25 전쟁 참전과 그 영향」, 중국해방군화보사·노동환 역, 『그들이 본 한국전쟁 1-抗美援朝-중국인민지원군』, 눈빛출판사, 14쪽.

56) 楊奎松, 2001, 「중국의 한국전 출병 시말」, 박두복 편저, 앞의 책, 324~325쪽.

57) 본회담은 총 159회 열렸으며, 회의의제 채택을 위한 제1의제 10회, 제2의제(군사분계선 협상) 17회, 제3의제(휴전감시방법과 기구협상) 8회, 제4의제(포로송환협상) 79회, 제5의제(관계 제국정부에 대한 건의사항 협상) 8회, 기타(1953.4.26~7.27) 37회 개최되었다. 김보영, 2013, 「정전협정과 전쟁의 유산」, 『역사와 현실』 80, 8쪽; 1953년 7월 27일까지 쌍방은 159회의 본회담 외에, 179회의 분과위원회 회담, 188회의 참모장교 회담, 238회 연락장교 회담 등 총 765회의 회담을 가졌다. 김명섭, 2013, 「한국군은 6-25전쟁 정전협정의 당사자인가?」, 『국방연구』 56-3, 107쪽.

58) 周恩來는 유엔군 대표단과 직접 협상하는 협상대표단과 협상지휘부의 이원적 구조를 만들고, 지휘부가 이극동-모택동-스탈린으로 이어지는 지휘계통을 통해 회담전략을 수립하며 회담 내용을 조정하는 브레인 역할을 하도록 하였다. 羅銀勝, 2012, 『喬冠華傳-紅色外交家的悲喜人生』, 文化藝術出版社, 102쪽.

도록 했지만, 연합국 대표단은 ‘모든 외국군대 철수’를 의제에 넣는 것을 재차 거절하였다.⁵⁹⁾ 주은래는 외국군대 철수는 ‘한반도에서 더 이상 적대행위가 발생하지 않는 필수조건’이라고 하였지만, 7월 19일과 24일 애치슨 국무장관과 마셜 국방장관은 각각 성명을 발표하여 외국군대의 한반도 철수를 거부했다. 주은래는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지는 것을 막기 위해 한발 물러서 외국군대의 한반도 철수문제는 이번 협상의제에는 포함시키지 않고 휴전 후 별도로 회의를 열어 논의하기로 정한 후 정전회담 5개 의제를 채택하였다.⁶⁰⁾

양측은 회의의제를 채택한 후 군사분계선 확정 문제에서 또 충돌하였다. 7월 28일 휴전협상에서 주은래는 ‘38선을 군사분계선으로 하는 입장을 고수하여야 한다’⁶¹⁾는 지침을 내렸지만, 유엔군이 38선을 반대하고, 우월한 해공군력을 반영하여 38선 북쪽의 분계선을 요구하였다. 당시 미국은 정치적으로 38도선 북쪽에서 전쟁을 중단하는 것이 북한이 남침에 패배했다는 실질적 증거가 된다고 판단하였다. 주은래는 “미국정부가 휴전여론을 조성할 때 리지웨이와 애치슨 모두 38선 휴전을 언급하였음에도, 회담이 시작되자 반대 입장을 표시했다. 그 원인은 만약 38선에서 휴전이 이루어지면 미국이 전쟁을 일으켜 북한의 독립을 침범했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때문에 미국은 38선에서 휴전하는 것을 거부한다. 이러한 상황을 감안할 때 우리는 투쟁을 준비하여야 한다. 평화와 전쟁을 동시에 준비해야만 주도권을 장악하여 확고한 우위를 점할 수 있다.”고 8월 22일 정부에 보고하였다.⁶²⁾

정전협상 개시 이후 중국은 ‘협상하며 싸운다’는 새로운 전략을 세웠다. ‘운동전’에서 ‘지구전’ 단계로 넘어간 것이다. 주은래 역시 전국의 변화와 미국의 정전협상 요구에 응해 ‘일면협상 일면전투’라는 정책을 통해 신중

59) 『周恩來年譜(1949~1976)』上卷, 1997, 159~160쪽.

60) 1951년 7월 26일 양측은 군사분계선 설정, 정전 감독기관 구성, 포로에 관한 협의 등 5개 의제 채택에 합의하였다.

61) 『周恩來年譜(1949~1976)』上卷, 1997, 164쪽.

62) 李金明, 2003, 앞의 논문, 61쪽.

국 건설과 평화로운 국제환경을 쟁취하고자 하였다.⁶³⁾ 군사분계선 협상과정에서 막대한 물적 인적 피해를 입고 있던 북한은 군사분계선 설정 이후 즉시 전투를 중지하기를 원했지만, 중국은 정전협상을 유리하게 이끌기 위해 전투를 계속하였고 북한의 요구는 무시되었다.⁶⁴⁾

3. 판문점 회담

1951년 10월 25일 63일간 중단된 회담이 판문점에서 재개되어 두 번째 의사일정 토론을 계속하였다. 주은래는李克農에게 상대에게 협상지연에 대한 그 어떤 구실도 주지 않도록 하는 지침을 보내 김일성과 팽덕회에게 전달하였다.⁶⁵⁾ 1951년 11월 27일 양측은 두 번째 의제인 군사분계선에서 ‘현 접촉선을 군사분계선으로 하고 양측은 이 접촉선에서 2km를 후퇴하여 비무장지대를 설치한다. 만약 군사휴전협약이 본 협약이 통과된 후 30일 후에 조인되면 향후 양측의 실제 접촉선의 변화에 따라 위의 군사분계선과 비무장지대를 수정하여야 한다’고 원칙적 타협을 보았다. 그런데 협상이 장기화 되면서 양측은 유리한 군사상황을 확보하기 위해 휴전협정에 서명할 때까지 전투를 계속하였으며 심각한 인명손실이 발생하였다.

양측은 1951년 12월 10일 접촉선에 의한 비무장지대 남북경계를 확정하였다. 하지만 회담은 포로교환문제에서 막혔다. 포로교환문제는 1년 5개월이나 협상을 지체시킨 난제였다. 포로교환 원칙에서 周恩來는 12월 8일~13일 전부석방의 원칙을 지키고 양측 모두 각자 포로명단을 제시하도록 여러 번 전달하였다.⁶⁶⁾ 그런데 유엔군의 포로교환 원칙은 일대일 교환에서 포로

63) 中華人民共和國外交部 外交史編輯室編, 1989, 『研究周恩來－外交思想與實踐』, 世界知識出版社, 22쪽.

64) 정전협상 과정에서 중국과 소련 북한간 이견과 갈등이 표출되었다. 3국의 이해관계가 달랐고, 3국 간 이해관계의 조정이 특정국(특히 북한)의 희망과 이익을 배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이재훈, 2013, 『러시아 문서보관소 소장 사료에 비친 휴전협상 시기 공산 측의 내부적 갈등』 『한국전쟁 정전60주년 국제학술대회－끝나지 않은 전쟁』, 고려대학교 역사연구소, 173쪽.

65) 이 기간 동안 周恩來가 모택동을 대신하여 대표단에 보낸 협상관련 전보문은 60여 통에 달한다. 『周恩來年譜(1949~1976)』 上卷, 1997, 190쪽.

의사 존중으로, 다시 자유송환 원칙으로 바뀌었다. 유엔군이 자유송환 원칙을 제시한 이유는 유엔군과 중국-북한군 포로 숫자의 큰 차이와 포로의 복잡한 성분 때문이었다. 전쟁포로에 관한 1949년도 제네바 제3협약 제118조는 전쟁이 끝나면 전쟁포로를 지체 없이 석방·귀환시키기로 규정하고 있으나, 포로교환 문제의 핵심은 송환을 거부하는 포로가 있다는 사실이었다. 유엔군이 포로들에게 송환여부를 묻는 심사를 한 후 13만에서 8만여 명으로 줄어든 포로 송환 숫자를 제시하자 중국은 이를 거부하였다.⁶⁷⁾ 중국군 포로의 송환선택 비율이 낮았기 때문에 중국은 이를 문제 삼아 즉각적인 전쟁 종결에 반대하고 강경책을 선택했으며, 이로 인해 전쟁은 1년 이상 더 지속되었다.

주은래는 전쟁의 장기화에 대비하여 ‘전투를 계속해서 미군이 전쟁에서 손을 떼도록 해야 한다. 우리가 적을 지지했지만, 그들이 전쟁을 포기하도록 하지 못했다. 전쟁을 계속하면서 건설을 병행하는 방침을 유지하여, 그들이 전쟁을 멈출 때까지 계속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⁶⁸⁾ 주은래는 1952년 1월 31일 스탈린에게 “우리는 미국이 협상지연이나 결렬을 통해 국제정세의 긴장을 피할 가능성에 대해 항상 경각심을 높이고, 반격할 준비태세가 되어 있다”고 보고하였고, 2월 14일 팡덕회에게 “현재 적이 전선에서의 움직임이 조용한 것은 우리를 시험하기 위한 유인책일 수 있고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하기 위함이다. 우리는 준비태세를 갖추고 전선을 강화하여 적의 계획에 휘말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지시하였다. 포로송환 외에도 협상지연의 쟁점은 비행장 복구문제, 소련국 중립국 포함문제 등이었는데, 주은래는 2월 24일 ‘비행장개축 제한, 포로 자유송환과 소련의 중립국 감독기구참여’ 등 세 가지 문제에서 절대 양보하지 말 것을 지시하였다.⁶⁹⁾

66) 『周恩來年譜(1949~1976)』 上卷, 1997, 202쪽.

67) 허만호, 1998, 『휴전체제의 등장과 변화』, 한국정치외교사학회 편, 『한국전쟁과 휴전체제』, 집문당, 170쪽; 1952년 2월 당시 미군의 수중에 있는 132,000명의 공산군 포로 가운데 약 28,000명이, 그리고 38,000명의 민간인 억류자 가운데 약 3만명이 각각 송환을 거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학준, 2010, 『한국전쟁 - 원인 · 과정 · 휴전 · 영향』, 박영사, 337쪽.

68) 『周恩來年譜(1949~1976)』 上卷, 1997, 279쪽.

휴전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지고 미군의 폭격으로 인한 피해가 늘어나자 북한은 신속하게 협정을 끌어내기 위해 양보할 수 있다는 의사를 표시했지만, 모택동은 불리한 상황에서는 양보할 수 없다는 태도를 견지했고 스탈린도 이를 지지하면서 김일성을 설득했다.⁷⁰⁾ 주은래는 3월 27일 모택동대신 김일성에게 전보를 보내, “지금 포로송환문제에서 양보하여 전쟁의 종식을 도모하려 하지만 만약 할 수 없다면 계속 전쟁할 것”이라고 하였다.⁷¹⁾ 3월 29일 김일성은 일선과 후방에서 매일 거의 300~400명이 사망하는 등 손실이 매우 크기 때문에, 미국과 송환포로 숫자를 계속 토론하는 것은 현명하지 못하다며, “가능한 조건에서 중국은 최선의 결과를 쟁취해야 한다”고 한 모택동의 전쟁계속 원칙에 우려를 표명하고 휴전을 원했지만, 결정권이 없었고 중국의 결정에 따라야만 했다.⁷²⁾ 중국도 휴전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었지만, 송환희망 중국인 포로와 송환거부 중국인 포로 숫자상의 심각한 격차는 중국으로 하여금 전쟁의 지속을 통한 ‘명예로운 휴전’을 강구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들었다.⁷³⁾ 중국은 포로송환을 정치문제의 관점에서 파악함으로써 강경하게 대응하였고 전쟁 장기화 전략을 취한 것이다.

1952년 10월 8일 다시 열린 정전협상에서도 포로송환 문제에 합의를 이루지 못하였다. 중국은 미국의 ‘자유송환’ 대신 주은래가 작성한 휴전후 단계별 포로전원 송환을 제의하였으나, 미국은 중국의 포로송환 원칙을 거절하고 10월 10일 무기한 휴회를 선언하였다.⁷⁴⁾ 주은래는 ‘중국의 입장은 제네바 협약에 따른 무조건 석방이지만, 미국은 어떻게 해서든지 일부 포로들을 자기들 손에 잡아두거나 소위 중립국을 통한 유엔의 감시체제에 두어서

69) 『周恩來年譜(1949~1976)』 上卷, 1997, 213~215, 220쪽.

70) 沈志華 著·최만원 역, 2010, 앞의 책, 346쪽.

71) 『周恩來年譜(1949~1976)』 上卷, 1997, 291쪽.

72) 沈志華 著·최만원 역, 2010, 앞의 책, 480~481쪽; 김보영, 2013, 앞의 논문, 12쪽.

73) 중국에게 포로송환 문제는 군사적 실리의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지켜내야만 하는 정치적 위신의 문제이자 이데올로기적 우열의 문제였다. 포로 숫자상 격차는 작게는 중국과 대만, 크게는 사회주의권과 자본주의권간의 체제경쟁에서 전자가 열세에 있음을 보여주는 유용한 증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재훈, 2013, 앞의 논문, 180쪽.

74) 『周恩來年譜(1949~1976)』 上卷, 1997, 262쪽.

실제로 미국이 조종하는 것'이라고 판단하고, '우리가 내놓은 제의는 포로 전원을 비무장지대에 보낸다는 상대의 요구를 받아들인 것이기 때문에 협상거절과 결렬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상대에게 있다'고 발표하였다.⁷⁵⁾ 이후 중국은 군대를 보충하고 장비를 개선하는 등 군비를 증강해 연합군의 공격에 대비하였다. '일면협상, 일면전투'의 시기가 무려 2년 이상 지속되면서, 전쟁은 더욱 참혹한 결과를 초래하였다.⁷⁶⁾ 이러한 결과는 '전투 계속의 원칙'에 합의한 미국과 중국에게 공동의 책임이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⁷⁷⁾

4. 정전협정 체결

1953년 2월 22일 유엔군 총사령관 클라크가 정전회담에서 부상병 포로부터 교환하자고 제의하였다. 이는 유엔측이 일방적으로 회담을 중단시킨 후에 처음으로 협력태도를 보인 것이었다.⁷⁸⁾ 주은래는 상이포로 교환은 포로 전원문제를 순조롭게 해결하는데 매우 중대한 의미를 지니고 있고 '포로전원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통하여 전쟁을 종식시키고 정전협상을 타결할 시기가 도래'하였다고 판단하였다.⁷⁹⁾ 게다가 3월 5일 스탈린이 사망한 후, 소련을 방문한 주은래에게 흐루시초프 등 소련지도부는 클라크의 문건을 이

75) 『周恩來年譜(1949~1976)』 上卷, 1997, 271쪽.

76) 2백만에서 3백만에 이르는 남북 민간인이 사망하였고, 40만 국군이 희생되었으며, 5만 4천여 명의 미군이 숨졌고, 백만에서 2백만에 이르는 공산군이 사망하였다. 더욱이 그러한 희생의 45%가 휴전협상이 개시된 이후에 발생하였다. 특히 포로 자원송환 원칙으로 논란을 벌인 15개월 동안 희생된 인원이 연합군측은 125,000명, 공산군측은 25만명에 달하였고 미군 북쪽으로 야기된 민간인 희생도 극심하였다. 정태우, 2010, 『한국전쟁과 평화의 법 : 한국전쟁 종결의 부정의』 『민주법학』 43, 142~143쪽.

77) 김보영, 2011, 「한국전쟁 휴전협정과 전쟁의 유산」, 한국역사연구회, 『역사와 현실』 80호, 352쪽.

78) 미국은 1953년 1월 20일 트루먼에 이어 대통령이 된 아이젠하워가 장기간에 걸친 정전 회담에 불만을 갖고 사태 타개를 위한 여러 방법을 모색하였다. 와다 하루끼 지음·서동만 옮김, 1999, 『한국전쟁』, 창작과 비평사, 287쪽.

79) 李金明, 2003, 앞의 논문, 66쪽; 와다 하루끼는 스탈린의 죽음으로 전쟁을 계속하자는 압력이 사라지고 변화가 일어났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이며, 스탈린도 이미 전쟁을 그만두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었으며, 스탈린에게 정전회담을 개시해야 한다고 생각하게 만든 것은 맥아더의 성명이었다고 한다. 와다 하루끼 지음·서동만 옮김, 1999, 앞의 책, 289쪽, 403쪽.

용해 전쟁포로 문제에서 타협을 준비해 평화를 위한 주도권을 장악하자고 주장하였다.⁸⁰⁾ 이에 중국도 소련의 정전협정 체결요구에 동의하였다.

1953년 3월 30일 주은래는 ‘조선정전문제에 관한 성명’을 통해, 송환문제의 공정한 해결을 보증할 수 있도록 양측은 정전 후 송환을 원하는 포로를 전원 송환하고, 귀국을 원하지 않는 포로는 중립국에 넘긴다는 두 가지 방법을 제안하였다.⁸¹⁾ 주은래의 제안은 제네바협약에도 위배되지 않고 또 연합군측이 말하는 전쟁포로 가운데 이른바 송환을 거절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승인하는 것도 아니었다. 중국은 회담이 시작된 이래 최대의 양보를 하였고, 국제사회에서의 호평을 기대하였다.⁸²⁾ 그런데 미국이 송환거부 포로를 중립국에 넘기는 문제에 실질적인 어려움을 이유로 반대하자, 중국 측은 송환거부 포로를 비무장지대의 중립국송환위원회에서 일정기간 관리하는 것에 동의하고, 미국의 ‘자유송환’ 원칙을 조건부로 받아들일겠다고 하여, 쌍방은 1953년 6월 8일 포로문제의 타협을 이루었다.

하지만 주은래는 여전히 전쟁을 지속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대비하였다. 중국은 4월 26일 판문점에서 포로송환 방안에 대한 회담을 진행하면서, 다른 한편 새로운 전투를 준비하였다. 미국도 정전협상이 결렬되면 공격을 개시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실제로 중국은 군사분계선을 유리하게 하기 위해, 협상과 동시에 전투를 계속하여 6월 15일까지 유엔군을 1km 이상 남쪽으로 밀어붙였다.⁸³⁾ 이승만 대통령의 반공포로 석방 등 휴전 방해에 대한 응징을 명분으로 7월 13일 금성전투를 시작한 중국은 점령지역을 최대한으로 넓히기 위한 공세를 펼치고 정전협정에 서명한 7월 27일야 전투를 멈추었다. 주은래는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에 팽덕회 총사령관이 서명하기 전까지 현장에 있는 대표단에 지시를 보내면서 협상 처음부터 끝까지 지도하였

80) 「周恩來致毛澤東電(1953.3.21)」, 逢先知·李捷 著, 2000, 『毛澤東與抗美援朝』, 中央文獻出版社, 118~119쪽.

81) 「周恩來外長關於朝鮮停戰問題的聲明(1953.3.30)」, 劉金質·楊淮生主編, 1994, 앞의 책, 444쪽.

82) 田進·朱青, 1989, 앞의 논문, 186쪽.

83) 洪學智 지음·홍인표 옮김, 1992, 앞의 책, 360쪽.

다.⁸⁴⁾ 주은래는 정전협정 체결은 ‘미국을 압박하여 정전협정을 체결케 한 중국의 승리이며, 미 제국주의에 이길 수 없다는 신화를 타파하였고, 제국주의가 중국을 쉽게 무력 침략할 수 없게 만든 것’⁸⁵⁾이라고 강조함으로써, 중화민족의 자신감과 자존감을 고양시키고자 하였다.

V. 정전협정 후 남은 문제

정전협정에 싸인한 클라크 연합군총사령관은 후에 회고록에서 ‘내가 미국 역사상 승리하지 못한 정전협정에 조인한 최초의 미육군사령관이었다’고 탄식하였다. 중국은 이를 미국이 실패를 인정한 것으로 보고, ‘정전협정’ 조인으로 항미원조전쟁이 승리로 종식되었다고 서술해왔다.⁸⁶⁾ 하지만 정전협정은 군사적 정전으로 한정되어 ‘정치적인 문제’가 포함되지 않았고, ‘평화적 해결이 달성될 때까지’ 한시적인 것이다.⁸⁷⁾ 전쟁 당사자 모두에게 ‘승리’도 ‘전쟁종식’도 아니었다. 정전협상은 개시가 늦었고, 군사분계선과 비무장지대에 대한 합의를 보았음에도 전투를 중단하지 않았고, 포로송환 문제로 협상의 조기타결을 방해하였으며, 협상을 강요하는 수단으로 과도한 공중폭격을 행사한 점 등에서 한국전쟁은 ‘정의’가 아닌 ‘부정의’로 짐철된

84) 회담지도를 위해 周恩來총리는 사무실에 대표단과의 직통전화를 두고 정전회담 중 수시로 통화하였다. 그리고 전보를 이용해 매일 회담상황, 미군동향, 미국기자 반응, 우리 의견 등을 주고받았다. 특히 회담이 끝날 무렵에는 서면보고 외에 매일 새벽에 잠들기 전에 반드시 전화를 하도록 했다. 喬冠華, 「關於朝鮮戰爭與停戰談判」, 中共黨史資料編輯部編, 2000, 『新歷重大歷史事件實錄』 4卷, 中國文聯出版社, 357~364쪽; 정부기록보존소, 2002, 앞의 책, 232쪽.

85) 中共中央文獻研究室編·金沖及主編, 1998, 앞의 책, 947쪽.

86) 解方, 「回憶朝鮮開城停戰談判」, 中共中央黨史研究室編, 1989, 『中共黨史資料』 32卷, 24~39쪽; 정부기록보존소, 2002, 앞의 책, 227쪽.

87) 정전협정은 ‘쌍방에 막대한 고통과 유혈을 초래한 한국 충돌을 정지시키기 위하여 최후적인 평화적 해결이 달성될 때까지, 한국에서의 적대행위와 일체 무력행위와 완전한 정지를 보장하는 정전을 확립한다’는 한시적인 것이다. 李相冕, 2007, 「한국전쟁과 휴전의 당사자 문제」 『國際法學會論叢』 52-2, 249쪽.

전쟁이었다.⁸⁸⁾

다만 정전협정은 양쪽의 사령관들이 한반도로에서 외국군 철수와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 해결 등을 토의할 고위정치회담을 휴전성립 후 3개월 안에 열도록 당사국 정부에 건의하도록 되어 있다.⁸⁹⁾ 주은래가 발표한 ‘조선 정치회의문제에 관한 성명(1953.8.24)’도 정전협정 조인 이후 정치회의를 소집하여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는 데 의미를 두었다.⁹⁰⁾ 1954년 4월 26일부터 한반도의 정치해결을 위한 회의가 제네바에서 열렸다. 유엔의 참전국 중 15개국과 중국·소련·북한 등 모두 19개국의 대표들이 참가하였고, 중국대표단은 주은래가 단장을 맡았다. 주은래는 1954년 5월 3일 한반도문제 토론회에서 한반도에서 모든 외국군대 철수를 주장하면서 “미국은 중국의 38선 추월금지 경고를 무시하고 침략을 확대시켰다. 유엔은 미국의 타이완 점령에 대한 중국의 제소를 무시하고 오히려 중국을 침략자로 몰아세웠다. 이러한 상황은 유엔의 위신을 추락시켰고 한반도와 아시아문제 처리에 명분을 잃게 하였다. 때문에 우리는 오늘 여기에서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회의를 소집하였다”고 언급하였다.⁹¹⁾ 이에 대해 5월 28일 미국대표인 국무차관은 유엔을 교전당사자로 간주하는 중국의 태도를 비난하면서, 한국문제는 유엔의 권능과 권위를 전제로 하여 해결되어야 할 것이라고 역설하였다.

한국문제를 논의한 제네바회의의 마지막 날인 6월 15일 주은래는 중국·소련·영국·미국·프랑스·북한과 남한 등 7개국이 참가하는 제한적인 회의를 소집하여 한반도 평화를 위한 토론을 진행하자고 건의하였다. 하지만 유엔참전 16개국은 중국 제안은 결국 유엔의 현장과 원칙을 백지화하려는 것이라고 비난하고, 앞으로 한국문제의 해결은 유엔의 원칙과 결의에 바탕

88) 정태욱, 2010, 앞의 논문, 143쪽.

89) ‘외국군대의 철수와 한반도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정치회의 소집’(쌍방 관계정부들의 건의, 제4조 60항).

90) 「周恩來外長關於朝鮮政治會議問題的聲明(8월24일)」, 劉金質·楊淮生主編, 1994, 앞의 책, 527~528쪽.

91) 『周恩來年譜(1949~1976)』上卷, 1997, 364쪽.

을 두어야 한다면서 회담중단을 선언하였다. 51일간 지속된 제네바회담은 아무런 합의도 이루지 못한 채 종결되었다.⁹²⁾ 제네바회의의 결렬 이후 주은래는 한반도 문제를 토의하는 장이 제네바회의의 19개 참가국보다 많은, 한층 광범한 회의를 개최하여 토의해야 하며, 회의가 유엔 내에서가 아니라 반드시 유엔의 밖에서 행해져야 한다고 강조하였다.⁹³⁾ 이후 중국은 유엔의 범위를 넘어 국제 여론을 배경으로 대미 관계를 유리하게 전개하고자 하였다.

정전협정 체결 이후 주은래는 항미원조의 계속와 인민지원군 철수 및 희생된 인민지원군 기념비 건립 등 후속 조치들을 처리하였다. 그는 1953년 11월 중국을 방문한 북한대표단에게 “중국인민은 항미원조 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여, 전쟁 상처의 치유를 적극 지원하고, 경제회복 지원과 전쟁도발 억제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하였다.⁹⁴⁾ 지원군 철수는 한반도문제의 평화적 해결에 대한 중국의 적극적 자세를 국제사회에 강조하는 효과가 있었다.⁹⁵⁾ 1958년 북한을 방문하여 인민지원군의 철수 절차를 협의하였다. 이때, 주은래는 미공군의 폭격으로 희생된 모택동의 장남 毛岸英이 묻혀있는 평안남도 회창의 ‘중국인민지원군 열사능원(烈士陵園)’을 찾아 참배하였다.⁹⁶⁾ 주은래는 모안영의 희생 직후 인민지원군열사를 기념하는 묘비를 세우겠다고 밝혔으며,⁹⁷⁾ 현재 심양 항미원조기념능원에는 주은래 총리가 직접 비문

92) 『周恩來年譜(1949~1976)』上卷, 1997, 383쪽.

93) 『周恩來外交活動大事記 1949~1975』, 1993, 82~83쪽.

94) 「周恩來總理在招待朝鮮政府代表團宴會上的歡迎詞(11月13日)」, 劉金質·楊淮生主編, 1994, 앞의 책, 612~614쪽.

95) 지원군이 철수할 때 이들이 거주했던 병영과 설비 및 물자를 모두 무상으로 인민군에게 이전하기로 했다. 沈志華 저·최만원 역, 2010, 앞의 책, 444쪽.

96) 북한에는 평안남도 회령군 회창에 마오안영과 지원군 134명의 유해가 안치된 ‘중국인민지원군 열사능원’과 운산·개성·상감령 등 8곳에 ‘열사묘’가 조성되어 있으며, 평양 모란봉 기슭에 인민지원군 명단이 보관돼 있는 ‘조중우의탑(朝中友誼塔)’이 세워져 있다. 1993년 후진타오(胡錦濤), 2001년 장쩌민(江澤民) 국가주석, 2005년 탕자쉬안(唐家璇) 국무위원이 ‘조중우의탑’에 헌화하였고, 2009년 국무원총리 원자바오(溫家寶)도 대표단 300여 명과 함께 회창의 ‘중국인민지원군열사능원’에 화환하고, ‘중국인민지원군의 불멸의 공훈과 위대한 정신은 해와 달과 함께 빛나리라’는 글을 남겼다. 2013년 4월 청명절에도 주북한 중국대사 일행이 평양 중국 인민지원군열사기념비 ‘우의탑’과 열사묘를 찾아 그들의 충혼을 기렸다. 「中國駐朝鮮大使館祭奠志願軍先烈」, 『人民日報』, 2013년 4월 5일.

97) 周恩來는 毛岸英이 미군폭격에 의해 평안북도 대유동에서 희생되었을 때, 중국인민지원

을 검토한 기념비가 세워져 있다.⁹⁸⁾

중국은 10월 25일을 항미원조기념일로 정하고 매년 항미원조 기념행사를 개최하고 있다.⁹⁹⁾ 그런데 10월 25일은 인민지원군이 미군과 첫 번째 전투가 시작된 날이다. 종전일을 기념하는 것이 새로운 출발과 평화와 이어져 있다고 한다면, 개전일을 기념하는 것은 전쟁이 계속되고 있음을 암시하는 방식이다. 중국의 항미원조전쟁과 한국의 '6·25전쟁' 모두 개전일을 기념한다. 이는 전쟁이 끝나고 평화가 찾아온 것이 아니라 아직도 남과 북의 대립 상황이 계속되고 있음을 기억하게 한다. 항미원조전쟁은 1950년대 초반 중국인에게 미국과 한반도의 이미지가 새로 그려지게 하였고, 계속해서 애국주의 교육의 소재로 활용되고 있으며, 회고록 전쟁문학 작품과 영화, 드라마 속에서 재현되어 오면서 지금까지 중국인의 한국인식에 깊은 영향을 미쳐왔다.¹⁰⁰⁾ 하지만 최근 한중 우호관계가 진전되면서 정전협정 60주년을 기념하여 2013년 인민지원군 병사가 파주 적군묘를 방문하고, 2014년 인민지원군 유해의 중국 송환이 성사되는 등 큰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¹⁰¹⁾

군 열사를 기념하는 묘비를 세우기로 하였다. 周恩來, 「毛岸英的犧牲是光榮地 - 致毛澤東, 江青(1951.1.2)」, 『周恩來書信選集』, 中央文獻出版社, 446쪽.

98) 이 기념비는 중국과 북한의 우의의 상징이기도 하며, 周恩來는 1963년 6월 崔鏞健위원장이 이끈 조선당정대표단과 함께 능원을 참배하였다. 瀋陽抗美援朝烈士陵園編, 2010, 『抗美援朝烈士永垂不朽』, 9쪽.

99) 1950년 10월 19일 중국인민지원군은 압록강을 넘었고, 10월 25일 제1차 전역의 총성이 울렸다. 인민지원군은 1950년 10월 25일부터 27일까지 북한 운산일대에서 처음으로 미군과 한국군과의 전투를 치렀고 승리를 거두었기 때문에 중국정부는 10월 25일을 항미원조기념일로 제정하였다. 石善福 외 2인 編著, 2000, 『抗美援朝紀念館』, 臺海出版社, 147쪽.

100) 손해룡, 2011, 앞의 논문, 158쪽.

101) 중국은 한국의 국방부는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에 유해송환을 기념하는 전시실을 개설하고 대외적으로 개방하며, 한중간 유해송환의 의미와 성과 등을 전시한다고 소개하였다. 『人民網』, 2014. 6. 20.

VI. 맺음말

‘항미원조 보가위국’이라는 중국의 항미원조전쟁 슬로건은 ‘보가위국’이 목적적이고 ‘항미원조’는 목적달성을 위한 수단이다.¹⁰²⁾ 중국은 ‘원조’보다 ‘항미’를 더욱 중시하였고, 순망치한이라 여기는 한반도를 안전지대로 만들고 대만과 조선으로부터 자신을 공격한다고 여긴 미군을 몰아내기 위해 인민지원군을 참전시켰다.¹⁰³⁾ 항미원조전쟁 기간 중국의 외교와 내정이 주은래에게 집중되어 있었기 때문에, 주은래는 정책결정뿐 아니라 직접 작전지휘 조직·지원군편성·간부배치·무기장비 조달·병력보충에서 군수산업 생산 교통운수·후방지원·외국원조 쟁취·신문보도와 정전회담의 구체적 방법까지 지휘하였다.

주은래가 모택동의 참전결정에 동의한 배경에는 북한과의 관계보다 소련의 영향이 절대적이었으며, 북한도 중국보다 소련의 후원을 믿고 전쟁을 개시하였다. 그러나 미군이 지휘하는 유엔군의 인천 상륙작전으로 전세가 역전되고, 미국과 직접 충돌을 피하고자 한 소련 대신 중국이 개입한 후, 전쟁의 주체가 북한에서 중국으로 바뀌어 국내전이 아닌 국제전으로 전환되었다. 중국은 소련의 군사적 지원을 토대로 장기에 걸친 전쟁 수행이 가능하였다. 이 기간 중국은 소련으로부터 다량의 현대식 무기를 공급받아 중공군을 발전시켰고, 전쟁개입을 통해 북한에 대한 영향력이 증대되었다. 중조연합사령부 설치이후 북한이 중국에 군사·정치적으로 종속되는 현상이 초래되었다.

주은래는 중조연합군에게 전투와 정전협상 체결과정 중 중국대표들이 대국주의 잘못을 범하지 말고 북한측과 협력하여 대책을 상의하도록 지시하였다. 이러한 그의 항미원조 활동은 ‘애국주의와 국제주의 결합’을 모범적

102) 張樹棟, 2009, 『決策抗美援朝』, 南京中央黨史學會抗美援朝研究分會編, 『開國第一戰的記憶與思考』, 中國文聯出版社, 63쪽.

103) 牛軍著, 2013, 『冷戰與中國外交決策』, 九州出版社, 216쪽.

으로 보여준 본보기라 평가받고 있다.¹⁰⁴⁾ 그러나 정전협상 과정은 전쟁을 끝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또 다른 승리를 위한 전쟁의 연장이었다. 중국은 전쟁이 장기화되자 ‘일면 협상 일면 전투’ 정책을 취하였다. 주은래는 미국 정부가 자국의 침략군이 실패를 맞이한 현 상황에서 소위 ‘선휴전 후협상’의 제안을 내놓은 것은 미국이 숨을 돌릴 시간을 벌며 다시 전쟁을 준비하려는 음모가 있기 때문이라고 여겼다. 이러한 판단은 스탈린과 모택동의 전쟁확대 노선에 따른 것이기도 하다.

정전회담은 유엔과 공산측의 대립처럼 보이지만, 정전회담이 2년여 지속되면서 북한과 중국의 갈등도 발생하였다.¹⁰⁵⁾ 유엔이 평화중재자가 아니라 전쟁 당사자로 참전했기 때문에 전쟁이 빨리 끝날 수 없었다는 측면도 문제이다. 전쟁이 왜 일어났고 누구의 책임인가도 중요하지만, 개전 이후 전쟁을 지연하고 확대시킨 자들의 책임도 무시할 수 없다는 점에서, 정전협정에 대한 새로운 평가와 연구가 요구된다.

중국의 전쟁종결 방식은 전세에 따라 여러 번 바뀌었다. 처음에 휴전협상에 의한 종결방식이었으나, 3차 전역 승리 이후 군사적 수단에 의한 전쟁종결 방식을 추구하였고, 제5차 전역이후 군사 상황이 불리해지자 다시 협상에 의한 전쟁종결방식으로 복귀하였다. 중국의 전쟁종결 목표에는 한반도에 친중 북한정권 유지가 필수적이었으나, 한반도 전체의 혁명 확산은 아니었다. 지금까지 중국의 항미원조전쟁에 대한 시각은 냉전시대의 인식이 그대로 계속되어 왔고, 2010년 10월 ‘항미원조전쟁 참전60주년 좌담회’에서 习近平 주석은 “위대한 항미원조전쟁은 평화를 지키고 침략에 맞선 정의로운 전쟁”이었고, “조선내전 발발 후 미국 트루먼 정부가 무장간섭하고 중국정부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38선을 넘었다. 중·조 양국 인민과 군대가 단결함으로써 위대한 승리를 거둘 수 있었다”고 언급하였다. 그런데 정전협정 60

104) 田進 朱青, 1989, 앞의 논문, 187쪽.

105) 미군 폭격으로 막대한 물적 인적 피해를 입은 북한은 정전협정이 빨리 체결되기를 기대하였지만, 毛澤東은 군사행동을 계속해 주도권을 장악하고 자신에게 유리한 정전조건을 쟁취하고자 하였다. 沈志華 著·최만원 역, 2010, 앞의 책, 492쪽.

주년을 맞이하여 중국의 태도가 바뀌고 있다. 중국은 국익을 위해 韓·中 中間 동반자관계를 더욱 발전시키고 있으며, 한중간 인민지원군 유해반환을 위한 협력도 이루어지고 있다. 2013년 6월 한국정부가 習近平 주석에게 ‘한국은 중국을 도와 지원군 열사 영구를 중국으로 옮기기를 희망한다’고 제의하였고, 중국이 이를 받아들여 2014년 3월 28일 항미원조전쟁 시기 사망한 인민지원군 유해 437구가 중국으로 송환되었다. 習近平 주석도 중국군 유해송환에 한국이 도움을 준 데 대해 감사를 표시하는 등 협력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중국은 정전협정을 체결한 한국전쟁 당사자이다. 앞으로 정전협정의 남은 문제와 전쟁의 유산을 평화롭게 해결하도록 한중 양국이 협력해 나가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軍事科學院軍事歷史研究所 編著, 1988, 『中國人民志願軍 抗美援朝戰史』, 軍事科學出版社(한국전략문제연구소 역, 1991, 『中共軍의 韓國戰爭史: 抗美援朝戰史』, 서울: 세경사)
- 김경일 지음·홍면기 옮김, 2005, 『중국의 한국전쟁 참전 기원』, 논형
- 김계동, 2012, 「한국전쟁은 더 빨리 끝날 수 없었는가? - 평화중재의 시도와 좌절」 『軍史』 83
- 김명섭, 2013, 「한국군은 6·25전쟁 정전협정의 당사자인가?」 『국방연구』 56-3
- 김보영, 2008, 「한국전쟁 휴전회담 협상전략과 지휘체계」 『史學研究』 90
- 김보영, 2011, 「한국전쟁 휴전협정과 전쟁의 유산」 『역사와 현실』 80
- 김보영, 2013, 「정전협정과 전쟁의 유산」 『역사와 현실』 88
- 김옥준, 2002, 「중국의 한국전 참전과 국내정치 참전의 대내적 요인과 영향을 중심으로」 『국제정치논총』 제42집 1호
- 김학재, 2013, 「중국의 한국전쟁 개입과 동아시아 분단체제의 탄생」 『‘냉전’아시아의 탄생: 신중국과 한국전쟁』, 문화과학사
- 김학준, 2010, 『한국전쟁 - 원인·과정·휴전·영향』, 박영사
- 當代中國叢書編輯委員會, 1990, 『抗美援朝戰爭』, 中國社會科學出版社
- 羅銀勝, 2012, 『喬冠華傳 - 紅色外交家的悲喜人生』, 北京: 文化藝術出版社
- 라종일 편, 1991, 『증언으로 본 한국전쟁』, 예진
- 李金明, 2003, 「戰爭与和平의理性抉擇 - 一 試析周恩來在朝鮮停戰談判中堅持原則性与靈活性的統一」 『軍事歷史研究』 2003年 第4期
- 리평(力平) 지음, 허유영 옮김, 2004, 『저우언라이평전』, 한얼미디어
- 박 실, 2013, 『중국 공문서와 자료로 본 중공군의 한국전쟁』, 청미디어
- 박두복, 2001, 「중국의 한국전쟁 개입원인 - 개입결정의 피동적 능동적 측면」 『한국전쟁과 중국』, 백산서당
- 박영실, 2011, 「정전회담을 둘러싼 북한·중국 갈등과 소련의 역할」 『현대북한연구』 14-3
- 박종철, 2012, 「중국인민지원군의 철군과 북중관계」 『한반도 분쟁과 중국의 개입』, 선인
- 백진현, 2001, 「6·25의 국제법적 성격과 휴전협정」 『서울대학교 法學』 41-2
- 服部隆行, 2007, 『朝鮮戰爭と中國』, 廣島: 溪水社
- 徐 勇, 2007, 「20세기 중국의 지역전략과 항미원조 전쟁과의 관계」 『만주연구』 6
- 石善福·宋群基·唐慶雄 編著, 2000, 『抗美援朝紀念館』, 臺海出版社
- 세르게이 곤차로프 외, 2011, 『흔들리는 동맹 - 스탈린과 마오쩌둥 그리고 한국전쟁』,

일조각

- 손해룡, 2011, 「1950년대 “항미원조운동” 중 나타난 한반도 인식», 한국중국현대문학학회, 『중국현대문학』 59
- 시메이 칭·김기근 역, 2012, 「한반도에서 미국과 중국의 대결 : 위기의 시대에 양국은 서로를 어떻게 평가했는가?」 『정치와 평론』 10
- 瀋陽抗美援朝烈士陵園編, 2010, 『抗美援朝烈士永垂不朽』
- 沈志華 저·최만원 역, 2010, 『마오쩌둥 스탈린과 조선전쟁』, 선인
- 沈志華, 2001, 「중국의 한국전쟁 참전결정에 대한 평가」, 박두복 편저, 『한국전쟁과 중국』, 백산서당
- 야스다 준, 2003, 「중국의 6·25전쟁 휴전협상-문제의 수렴과 협상의 정치문화」, 『일본의 6·25 전쟁연구』,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 楊奎松, 2001, 「중국군의 정전협상전략」 『한국전쟁사의 새로운 연구』 1, 서울 :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 楊奎松, 2001, 「중국의 한국전 출병 시말」, 박두복 편저, 『한국전쟁과 중국』, 백산서당
- 梁鎮三, 2002, 「전쟁기 중국지도부와 북한지도부 사이의 모순과 갈등」 『한국전쟁사의 새로운 연구』 2,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 와다 하루끼 지음, 서동만 옮김, 1999, 『한국전쟁』, 창작과비평사
- 王元周, 2011, 「한국전쟁기간 중국의 군비지출과 대북지원」 『통일인문학논총』 52
- 外交部外交史研究室編, 1993, 『周恩來外交活動大事記, 1949~1975』, 世界知識出版社
- 牛軍, 2001, 「한국전쟁에서 중미 양국 결정에 대한 비교 연구」, 박두복 편저, 『한국전쟁과 중국』, 백산서당
- 牛軍著, 2013, 『冷戰與中國外交決策』, 北京 : 九州出版社
- 우병국, 2005, 「중국의 한국전쟁 현황에 관한 분석」 『중소연구』
- 劉金質·楊淮生主編, 1994, 『中國對朝鮮和韓國政策文件匯編』 I (1949~1952) · II (1953~1957), 中國社會科學出版社
- 이광렬, 2005, 「중국 周恩來 외교정책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정책대학원 석사논문
- 李東朗 任貴祥 主編, 1998, 『細說周恩來』, 河南人民出版社
- 이병주, 1990, 「중국의 한국전 개입과 그 영향」 『국제정치논총』 특집호
- 李相冕, 2007, 「한국전쟁과 휴전의 당사자 문제」 『國際法學會論叢』 52-2
- 李玉貞, 2007, 「6·25전쟁이 중국외교에 미친영향(1940~1978)」 『軍史』 65호
- 이완범, 2001, 「중국인민지원군의 한국전쟁 참전 결정과정」, 박두복 편저, 『한국전쟁과 중국』, 백산서당
- 이완범, 2005, 「중국의 6·25 전쟁 참전과 그 영향」, 중국해방군화보사·노동환 역, 『그들이 본 한국전쟁 1 - 抗美援朝 - 중국인민지원군』, 눈빛출판사
- 이종석, 2000, 『북한 - 중국관계 1945~2000』, 중심
- 임우경, 2011, 「한국전쟁시기 중국의 반미대중운동과 아시아냉전」 『사이 間』 10

- 張民 張秀娟著, 2000, 『周恩來與抗美援朝戰爭』, 上海人民出版社
- 章百家, 2001, 「위기처리 시각에서 본 항미원조 출병결정」, 박두복 편저, 『한국전쟁과 중국』, 백산서당
- 田進 朱青, 1989, 「略談周總理對朝鮮停戰談判的領導思想」, 中華人民共和國外交部 外交史編輯室編, 『研究周恩來－外交思想與實踐』, 世界知識出版社
- 정부기록보존소 편, 2002, 『韓國戰爭과 中國－韓國戰爭關聯 中國資料選集』
- 정태욱, 2010, 「한국전쟁과 평화의 법 ; 한국전쟁 종결의 부정의」, 『민주법학』 43
- 趙學功, 2007, 「6·25전쟁이 중국군사에 미친 영향」, 『軍史』 65호
- 周恩來軍事活動紀事編寫組編, 2000, 『周恩來軍事活動紀事(1918~1975)』下卷, 中央文獻出版社
- 中共中央文獻研究室, 中國人民解放軍軍事科學院編, 1997, 『周恩來軍事文選』, 人民出版社
- 中共中央文獻研究室編, 1997, 『周恩來年譜(1949~1976)』上下卷, 中央文獻出版社
- 中共中央文獻研究室編·金冲及主編, 1998, 『周恩來傳』, 北京: 中央文獻出版社
- 中共中央文獻編輯委員會編, 1980, 『周恩來選集』下, 人民出版社
- 중국 군사과학원 군사역사연구부 저, 오규열 역, 2002, 『중공군의 한국전쟁사 1』, 서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 중국해방군화보사, 노동환 역, 2005, 『그들이 본 한국전쟁 1－抗美援朝－중국인민지원군』, 눈빛출판사
- 中華人民共和國 中共中央文獻研究室 編著, 1994, 『毛澤東外交文選』, 北京: 中央文獻出版社·世界知識出版社
- 陳忠龍 等編著, 2001, 『抗美援朝戰爭論』, 軍事議文出版社
- 창 일, 2001, 「중국의 한국전 개입에 대한 미국의 정책과 전략」, 『軍史』 42
- 崔北鎭, 2012, 「6·25전쟁 시 중국의 전쟁종결전략 결정요인 분석」, 『軍史』 85
- 崔北鎭, 2013, 『중국의 6·25전쟁 종결전략 연구』, 대전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한국정치외교사학회 편, 1998, 『한국전쟁과 휴전체제』, 집문당
- 解力夫, 1993, 『朝鮮戰爭實錄 上下卷』, 世界知識出版社
- 허동욱, 2010, 「중국의 한반도 군사개입 전략에 대한 역사적 고찰」, 『軍史』 76
- 홍면기, 2002, 「중국의 한국전쟁에 대한 인식변화」, 『戰史』 4호
- 洪學智 지음, 홍인표 옮김, 1992, 『중국이 본 한국전쟁』, 고려원
- Chae-Jin Lee, 2002, The Korean War and China-North Korea Connection, 유영익·이채진 편, 『한국과 6·25전쟁』, 연세대학교출판부
- David Tsui, 2010, 「중국의 6·25전쟁 참전」, 『전략연구』 17-3

■ Abstract ■

Zhou Enlai and China’s War to Resist U.S. Aggression and Aid Korea

Kim, Jeong-Hyun

When war erupted on the Korean peninsula on June 25, 1950, China initially labeled it the ‘Korean War.’ However, as the Chinese People’s Volunteer Army began to intervene in the war by October of the same year, China officially referred to it as the ‘War to Resist U. S. Aggression and Aid Korea.’ To ‘Resist the United States’ (抗美援朝) at the time represented the jingoistic slogan ‘Protect our homes and defend our country’ (保家衛國). ‘Aid Korea’ (援朝) stood for a slogan of internationalism to help the endangered brother country ‘Joseon.’ Nevertheless, from simply defending the home country, the War to Resist U. S. Aggression and Aid Korea transformed into a war involving major political, diplomatic and military matters for China such as modernizing the People’s Liberation Army, developing its domestic economy, utilizing mass mobilization and jingoism, and achieving the status of a power player in the world. For China, the War to Resist U. S. Aggression and Aid Korea was an all-out war that drew upon human, material and ideological support from all corners of the Chinese society. Such omnidirectional resistance against the United States and aid toward Korea was overseen by Zhou Enlai(周恩來), then Premier and first Foreign Minister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who was also the vice chairman of the Military Commission of the Central Committee. Zhou Enlai was at the center of China’s domestic and diplomatic affairs at the time. Hence, not only was he naturally involved in making policy decisions, but he was also involved in managing military affairs, for example, directing military operations, organizing the People’s Volunteer Army, procuring weapons and equipment and

dispatching reinforcements. Zhou was the de facto leader responsible for handling many tasks related to the ‘War to Resist U.S. Aggression and Aid Korea’ such as providing rear support and war supplies, dealing with internal political affairs or engaging in diplomatic negotiations and negotiations for an armistice agreement.

This paper first examines the rationale behind Zhou Enlai’s decision to go to war with the United States and dispatch the People’s Volunteer Army when he was well aware of the difficult military and economic circumstances China was facing in 1950 as a newly established nation. The paper thereafter reviews the movement to resist the United States and aid Korea, which was initiated to successfully intervene in the war. The entry of the Chinese People’s Volunteer Army into the war promoted China to become a savior of North Korea. However, China lost its opportunity with the United States to end the war early. As negotiations for an armistice agreement prolonged, North Korea wished to immediately cease fire after installing the military demarcation line because it had been gravely suffering from human and material damages. Meanwhile, China ignored North Korea’s wishes and continued to engage in combat to gain an advantage in the negotiations. When talks reached a standstill while discussing a system to repatriate prisoners of war, a stalemate of two years went by ‘negotiating on the one hand and battling on the other,’ which led to brutal outcomes of war.

When the armistice agreement was finally signed in July 1953, Zhou Enlai deemed it as a victory for China from successfully pressuring the United States into signing the agreement. Zhou intended to boost the confidence and self-esteem of the Chinese people by stressing that imperialistic forces would not be able to easily attempt an invasion of China since the myth had been broken that defying American imperialism shall fail. Yet, China no longer persisted in resisting the United States and supporting Korea as it did in the 1950s for the purpose of defending the home country. China’s attitude toward Korea regarding the Korean War seems to be changing rapidly as of late with Chinese President Xi Jinping expressing gratitude to Korea for returning the remains of Chinese soldiers who fought in the Korean War. With this recent return of remains, China is on its way to making progress with Korea on clearing out legacies of

the Korean War. As a country that was at the center of developments in the Korean War and its armistice agreement, China should continue to cooperate with Korea to peacefully resolve issues concerning the armistice agreement that still remain.

Key words : Chinese People's Volunteer Army, War to Resist U.S. Aggression and Aid Korea, Zhou Enlai, Movement to resist U.S. aggression and aid Korea, armistice agreement